영광이 가득한 왕

메시아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

Hans-Jörg Ronsdorf

영광이 가득한 왕

메시아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

Hans-Jörg Ronsdorf

제2판 증보판, 2022년 8월 (독일어판)
삽화: 프리데리케 체슈키(Friederike Zeschky)
본문: Hans-Jörg Ronsdorf – 모든 권리 보유
Albis 6½, 87477 Sulzberg
연락처 이메일: hj-ronsdorf@t-online.de
www.hans-joerg-ronsdorf.de
독일어판 ISBN 978-3-9826027-7-6
교정: 가브리엘레 징어(Gabriele Singer)
표지 디자인: 프리데리케 체슈키(Friederike Zeschky), 토비아스 슈트리커(Tobias Stricker)
인용한 성경 번역본 (독일어판):
Elberfelder, CSV
Das Buch, Roland Werner
Die Zürcher Bibel
Die Gute Nachricht
Neue Genfer Übersetzung

우리는 복음주의 자유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주의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교파와 함께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자는 도장 기술 분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964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내 크리스티네(Christine)와의 사이에 장성한 자녀 5명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관해 연구한 것도 즐겨 공부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왕이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의 믿을 만한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주로, 왕의 왕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는 놀라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 세 마디로 말하는 좋은 소식

세 마디로 기독교 메시지, 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히 짚어 내거나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세 마디가 좋은 소식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에 관해 해야 할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여기 세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각각 이 핵심을 묘사합니다. 미리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꼭대기입니다. 복음은 예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사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요약하면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맨 앞에 둘 것입니다. 이 세 마디가 핵심을 짚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들은 세계사의 전환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정체를 묘사합니다. 이 세 마디는 전선과 권력의 교체를 확증합니다. 곧 죽음의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답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새로운 빛 아래 보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계속 읽어 보십시오 – 그리고 참된 왕의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 보십시오. 예수 이야기와 그 영광스러운 결말,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한 분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를까요? 신약성경의 거의 모든 기자가 그분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약성경의 기자들도 이미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유대교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 외에 무엇보다 왕들이 기름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왕의 대관식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위해 택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뜻입니다. 앞의 말은 히브리어에서, 뒤의 말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칭호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언제나 예수의 왕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높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주권자로서, 특히 물론 그분의 백성, 곧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위에 계신 분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곧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오직 그분만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이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본문에서는 그분이 명시적으로 왕이라고 불리지 않을 때에도 왕의 모티브를 자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들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시대의 가장 큰 질문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큰 질문과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을까? 인류로서 우리는 누구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을까? – 사람들과 그들의 집인 우리 행성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맡겼던 우리 세계와 역사의 위인들에게는 흔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형 인간이었고, 음모를 꾸미고 부패했으며, 사람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했고, 무의미한 전쟁으로 내몰았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 동안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권력자들은 이 병에서 나았다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속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누구에게든 자신을 내어 맡기고 싶은 갈망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이에게 자신을 맡기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이를 찾을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세상에 한 분을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고 또 맡겨도 됩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분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왕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갈망을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분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저의 확신이며 다른 많은 사람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이 한 분은 예수,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유일무이한 왕을 알아 가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발견의 여행에 함께 나서 보십시오. 잠시 동안 마음을 열어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7

더 읽고 깊이 묵상하기: 사도행전 2:33-36; 3:13-20; 4:10-12; 13:37-39; 17:30-31; 다니엘 2:44; 스가랴 9:9; 14:9; 마태복음 27:11; 요한복음 18:37; 히브리서 7:1-3; 요한계시록 1:5; 19:16; 출애굽기 40:15; 사무엘상 15:17; 16:3, 12-13; 사무엘하 2:4, 7; 5:3, 17; 12:7; 시편 89:20; 열왕기상 1:34, 39, 45; 5:1; 역대상 11:3; 14:8; 29:22; 출애굽기 28:41; 30:30; 40:15; 레위기 7:36; 민수기 3:3; 히브리서 2:14; 4:15; 잠언 16:15.

2 오늘날에도 왕이 필요할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저는 군주제를 지지하거나 그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더 나은 국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가장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황제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주권을 가진 1인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할 위험은 정치 모델에 따라 큽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보여 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곳에서는 완전한 안전이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영원의 이편에는 완전한 통치 형태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한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어떤 통치 형태든 하나님의 복 아래에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모든 권한을 가진 왕, 모든 문제와 주제에서 온전한 권위를 가진 왕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다만 그를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가 돈도 군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할 때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왕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분입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왕, 이 직분을 위해 태어난 왕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이 한 분, 바로 그분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네, 우리는 그분, 이 한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구의 말이든 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알현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이 알현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치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왕의 보좌는 우리에게서 한 걸음, 기도 한 번 거리에 있습니다 – 한 걸음이면 우리는 왕과 이야기합니다. 크게, 작게, 생각 속으로. 조용히,

머뭇거리며, 의심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속삭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그분을 부릅시다. 도움을, 용서를, 자유를 구합시다! 그분의 손이 내밀어져 있습니다 – 그 손을 붙잡읍시다!

벌써 많은 것을 앞당겨 말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5:2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10

더 읽고 깊이 묵상하기: 요한복음 20:17;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30; 디모데후서 2:12; 요한계시록 5:10; 20:4; 로마서 5:2; 에베소서 2:18; 3:12; 히브리서 4:16; 시편 50:15.

3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덴의 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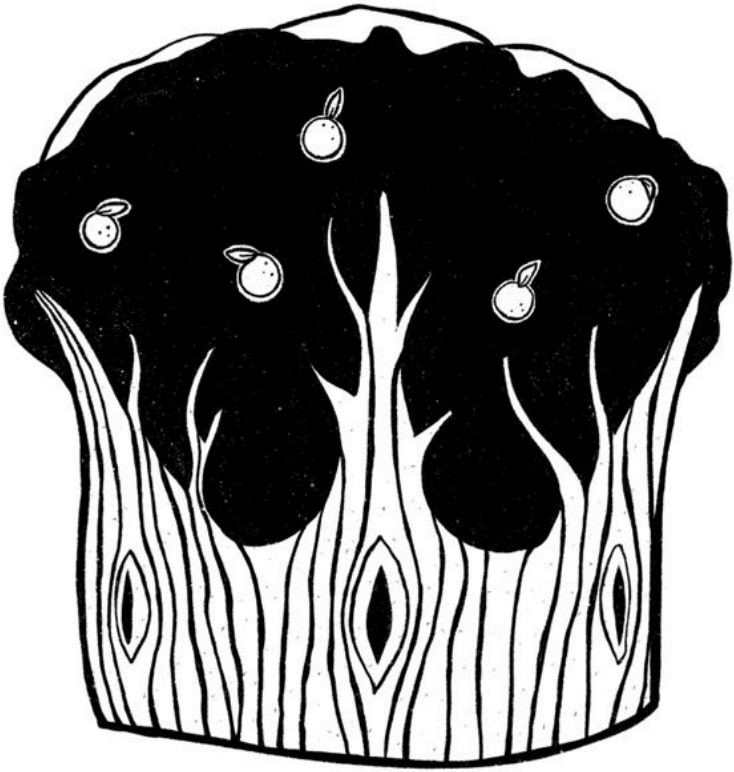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분의 왕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여자든 남자든, 여왕이요 왕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왕의 존엄을 지닌 한 쌍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왕의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덴동산과 온 땅이 그들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다스린다는 것은 돌보고, 지키고, 경작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서로를 다스리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나 피조물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와 그 창조 이야기가 생겨난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반문화적이었습니다.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의 아들이라는 특권은 왕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주적으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왕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더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위를 대물림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 같은 인권이 없는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왕과 여왕, 곧 아담과 하와에게는 – 비유적인 의미에서 – 궁전, 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그들의 모든 후손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낙원은 온 땅으로 퍼져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창조주요 보존자요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그렇습니다. 부왕으로서 그 인간 한 쌍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낙원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넉넉하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기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돌보는 마음을 사람들도 가져야 했고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절이 이 평화로운 모습을 끝내 버렸습니다. 대리 통치자들이 그들의 통치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주께서 자기들을 위해 좋은 뜻을 품고 계신지 의심합니다. 자기들의 행복에 빠진 좋은 무언가를 그분이 숨기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백하게 취하지 말라고 명령받은 것을 취합니다. 그 명령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표시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습니다. 악은 그것을 저질러 보아야만 압니다. 선을 넘었고, 얻은 깨달음의 대가는 비쌌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낙원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임재가 보호와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생존 투쟁, 에덴 밖에서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혹독하고, 사람들도 혹독해집니다.

사람의 왕적 존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상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졌습니다. 그것도 너무 심하게 일그러져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력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 위에 왕이 됩니다. 창조주를 우상으로 바꿉니다. 생존 투쟁 속에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강한 자가 이깁니다. 또는 살아남습니다. 왕의 존엄이 우리 사람들에 의해 일그러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이상보다 들짐승을 더 닮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때로 처음과 어딘가 비슷한 무언가를 꿈꿉니다. 자유롭고 사랑이 가득한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것과 안전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때문에 지금처럼 되어 버린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들보다 더 이 상황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 뜁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쓰십니다. 세계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 일부입니다. 또는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읽고 깊이 묵상하기: 창세기 1-4장; 시편 8편; 야고보서 3:9; 로마서 5:12-21; 디모데전서 2:3-7

4 왕들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에덴 이후에도, 에덴 밖에서도 계십니다. 다만 더 이상 에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분이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붙드시며 살아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 모든 피조물 밖에 계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과 모든 세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 영원한 왕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종교에서, 문화에서, 가정생활에서, 정치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왕의 존엄, 그분처럼 돌보는 존엄은 삶의 좌우명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떠하면 안 되는지도 일깨워 줍니다. 양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과 같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주의 왕과 함께일 때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안의 빈자리를 그분은 채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온갖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우상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족을 갖기 원하십니다. 왕족 가족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신다면, 우리는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이정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차원을 얻습니다. 그는 복이 될 것이고, 많은 후손을 얻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다음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노예가 됩니다. 작은 민족이 생겨납니다.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께서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해방의 출애굽이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이끌어 광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백성이 됩니다.

온 백성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중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율법, 곧 십계명은 언약의 일부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옛 언약이라고만 불리게 됩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신, 곧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평화로운 모습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의 범법과 죄는 보상과 용서를 요구합니다. 제사 제도가 세워집니다.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그리고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은 세상 민족들에게 본보기였고, 그래서 길잡이였습니다. 또는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본성과 실재를 비추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왕이거나 왕을 모시고 있고 온 백성이 왕들과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손상된 것처럼, 왕들과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왕과 여왕이 자기 역할과 존엄에 걸맞게 살지 못할 때를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되는 것, 칭호를 가지는 것과 그것에 걸맞게 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라고 불리는 일종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내맡겨져 있을 뿐 아니라 자주 그것의 공범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원과 해방이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 히브리서 1:3; 사도행전 17:27-29; 창세기 4:26; 시편 10:16; 24:8; 29:10; 이사야 6:1; 창세기 12:2; 출애굽기 12장; 19:6; 20장.

5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성경의 역사 기록에서 여러 지도자가 사실상 왕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또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인간 왕의 원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로써 그는 이 책의 주제인 오실 왕의 본보기요 시조가 됩니다.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 예언적 환상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오실 왕이 그저 다윗의 또 한 아들이 아닐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더 큰 다윗, 아니 다윗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왕이신 예수 안에서 이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이 새로운 다윗은 메시아 기대의 정수가 됩니다. 그는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적 구원 시대의 상징입니다. 그 시대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다시 한 나라로 합치고, 옛날을 새롭게 되살릴 것이었습니다. 기대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르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예언이 틀려서가 아니라, 예언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가 흠이 없거나 심지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많은 것이 잘못됩니다. 그는 간음한 자, 살인한 자가 되고, 형편없는 아버지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을까요? 비밀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패배와 실패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거듭거듭 찾았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그는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크게 죄를 지었고 그 결과를 쓰라리게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깨어지기 쉬웠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언약, 곧 다윗 언약에 기댈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새로운 다윗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보장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실패한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오실 메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깨뜨릴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나라는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언젠가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실 분은 누구일까요? DAVIDUS REX, 곧 다윗 가문의 왕이 되실 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일까요?

사무엘상 16:13;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하와 역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42-45.

6 왕을 기다리며: 예언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나왔고 지금 어려움 한가운데 있는 작은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입니다. 이 백성의 거룩한 문서들은 한 왕이 오리라는 많은 약속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분,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가진 분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생겨나고 모인 이 문서들은 거듭거듭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메시아입니다. 이 왕에 대한 기대는 작은 나라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살아 있게 합니다. 진짜 살아 있는 소망입니다.

메시아 기대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도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주 능력과 영광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과 두려움도 언급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둘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 성경의 본문들은 서로 다른 기대를 낳았습니다. 그 점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리라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때에 메시아 기대는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직접 그 비밀을 알게 된 몇 안 되는 사람들, 아기와 어머니를 보는 사람들에게 큰 날이 왔습니다.

이 메시아 왕과 연결된 기대는 더 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스라엘, 또는 그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일부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가 세계의 수도입니다. 메시아는 이것을 바꾸고 뒤집어엎을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문제에 대해 그는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답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메시아를, 참된 구원의 왕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뒷받침했을까요? 예언, 곧 미리 말한 것들이 이 백성의 역사에서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결국 이것은 가장 큰 일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크게 한 걸음 뛰어, 미리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들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2

몇 가지 예언: 창세기 49:10; 민수기 24:17; 이사야 7:14; 9:7; 11:1; 40:3-5, 11; 53장; 예레미야 23:5-6; 미가 5:2; 호세아 11:1; 말라기 3:1; 시편 118:22; 스가랴 9:9; 12:10; 13:7; 시편 2편; 16:10; 30:3; 110:1 외 다수.

7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 어떤 내용이든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흔한 말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 숭배는 이 말을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으로 사용합니다. 그의 탄생과, 제국과 그 백성에게 복이 되는 그의 뛰어난 특성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유명한 프리에네 비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로마 황제에 관한 기쁜 소식으로 로마 제국에 퍼집니다.

> “이날은 온 세상에 다른 모습을 주었다. 이제 태어난 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의 행복이 빛을 발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멸망에 빠졌을 것이다. 이 생일에서 자신을 위한 생명과 모든 생명력의 시작을 알아보는 사람은 옳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제 마침내 태어난 것을 후회해야 했던 시대는 지나갔다. 개인도 전체도 모두에게 똑같이 복된 이 생일만큼 많은 좋은 것을 다른 어떤 날에서도 받지 못한다.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섭리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사람을 그러한 은사로 채웠으니, 섭리는 그를 우리와 다가올 세대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었다. 그는 모든 다툼을 끝내고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이룰 것이다. 그의 나타남 속에서 조상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는 이전의 인류의 은인들을 모두 능가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가 언젠가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신의 생일은 그와 연결된 기쁜 소식들[복음들]을 세상에 가져왔다. 그의 탄생으로부터 새로운 연대 계산이 시작되어야 한다.”

고대의 독자가 다른 한 문학 작품의 표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고 싶다면 이런 종류의 글을 눈앞에 두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스스로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는 예수와 그분의 삶을 황제 옆에 세웁니다. 그는 자기 복음서의 독자와 청중을 선택 앞에 세웁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해당되어야 했던 것이 예수와 그분의 나라에도 해당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만 황제 숭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독론적 칭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칭호인 “주”(헬라어: kyrios)도 마찬가지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능가하는 통치자가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사렛 예수는 모든 예언과 기대의 성취입니다.

아우구스투스에 대해, 그리고 그에 관해 말해진 것은 죽을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 역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야만 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죽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이 없으십니다 – 아우구스투스와 다르게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사람의 가장 큰 원수를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세상에서 없애실 것입니다. 곧 죄를.

마가복음 1:1; 요한복음 10:18; 히브리서 2:9-14; 요한복음 1:29.

8 메시아 왕의 탄생

모든 탄생은 기적입니다. 저는 다섯 번이나 그런 일을 함께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기쁨이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바뀝니다. 고대에는 출산이 어머니와 아기에게 좋게 끝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왕의 탄생도 기적입니다. 아마 우리 행성이 겪은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몇 단계나 넘어섭니다. 하나님 자신, 전적으로 다르시고 헤아릴 수 없는 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작아지십니다. 약 3500그램으로 줄어드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우주의 창조주요 왕이십니다.

이 왕은 어떻게 우리 세상에 들어오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시내산 위에서 두렵게, 여러 번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방문"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마음에 두셨던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머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또다시 핵심을 짚는 단 세 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죽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 되심을 이루는 것을 뒤에 두고 오십니다. 하늘의 보좌, 전능, 통치를 뒤에 두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빼앗은 것처럼, 또는 매달려야 할 것처럼 붙들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의미 없는 때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 그의 복음에 관해서는 이미 들었습니다 – 자기 제국의 주민들을 세고 호적에 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자기 고향 성읍으로 가야 합니다. 만삭인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백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걸어간 뒤에 보니, 모든 집이 꽉 차 있습니다. 때는 9월입니다.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친척 집 위층 방, 곧 이스라엘 가옥의 생활 공간에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친척 집에 묵게 됩니다. 다만 1층, 밤이면 가축을 들여놓는 곳입니다. 집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해산하는 동안 남자들은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출산은 곧바로 시작되고 순조롭게 끝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맏아들을 여물통에 누입니다.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아기는 거기서 잘 잡니다. 출산을 위한 임시변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리고 지극히 소박한 형편의 이 평범한 부부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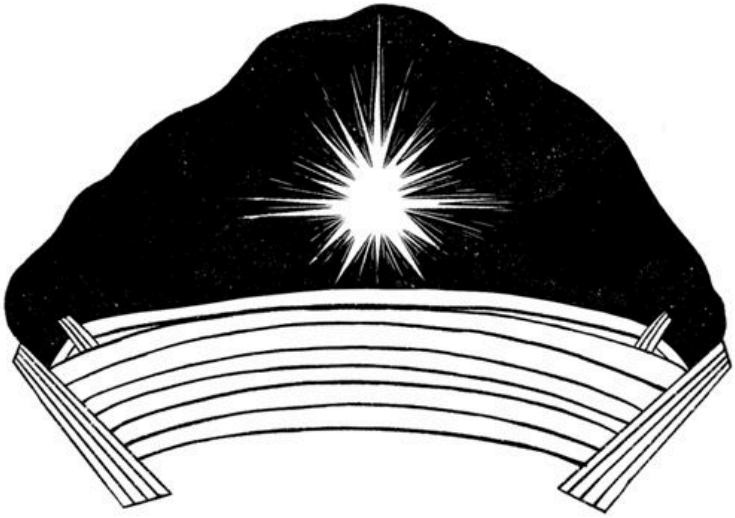
예수는 부자와 유명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사람과 고귀한 사람들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다시 생각해 주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잊히고 간과된 사람들. 이것은 이미 그분이 태어나신 방식에 비칩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가장 볼품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의미의 무게 전체를 거의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 속에 영원을 써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평범하고 지루하고 일상적이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삶 한가운데에 영원히 놀라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삶 속으로 오는 왕, 무력한 아기로 와서 젊은 부부에게 자신을 맡기는 왕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옛 바빌로니아 지역인 파르티아 왕국에서 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와서 별을 따라갑니다. 그 별은 그들을 정확히 탄생 장소로 이끕니다. 어쩌면 바빌론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경으로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들은 탄생 다음 날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몇 달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와 아기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값진 예물로 이 아기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듯 그 어린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처음으로 경배한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파르티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많이 논의되는 주제인 동정녀 탄생이 더해집니다. 예수께는 남자 생부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요셉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모든 것을 다합니다. 모든 것이 옳게 되었다고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비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도 동정녀 탄생을 은유나 우화로 여깁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생물학적, 신체적 상태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임신을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잉태", 곧 성육신은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잉태되고 수태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그러하십니다. 하나의 신비입니다. 거룩한 이가 되시려면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죄 없는 분이 되시려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왕은 우리 삶 속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소박한 거처로 그분께는 충분합니다. 그분께는 궁전이 필요 없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우리 삶은 왕이 들어오실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들어오시게 하면 그래도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저는 이 글을 성탄절 기간에 썼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에는 이런 후렴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후렴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 오, 우리 경배하세,
>
> 그 왕께.
>
> 영광의 왕,
>
> 만군의 통치자.
>
> Adeste fideles, 프리드리히 하인리히 랑케(Friedrich Heinrich Ranke)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천 번을 태어나셨다 해도 네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너는 영원토록 잃어버린 자로 남으리라.

> 앙겔루스 질레지우스(Angelus Silesius)

요한복음 1:1-2, 14; 출애굽기 3:1-6; 19:16-25; 요한계시록 21:1-3; 빌립보서 2:5-10; 갈라디아서 4:4; 누가복음 2:1-7; 마태복음 2:1-18; 누가복음 1:35; 시편 2편; 요한복음 3장.

9 왕의 출신과 사명

이스라엘, 또는 그 가운데 아직 남아 있던 것은 오랫동안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왕인 자는 에돔 사람 헤롯이었습니다. 로마의 관할 아래 있는 이 작은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마땅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족보로 자신이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점에서 막힐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는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 가문의 후손이셨습니다.

예수는 태어나시기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불교적인 의미의 환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도 없이, 태어남도 없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땅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백성의 갈망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예언들을 성취로 이끄십니다. 우리 유럽 사람들과 세상 민족들은 거기서 처음에는 그저 구경꾼일 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의 긴 줄의 마지막 분, 최종적이고 가장 큰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소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오십니다. 로마 사람들에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예수를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시작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예수께서 다스리십니다 –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왕과 왕적 통치라는 생각은 처음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역할에서 실패했습니다. 나중의 많은 왕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언제나 생각하셨던 다스림의 모습대로 말입니다.

그들의 왕, 메시아, 주로서 아들은 이제 교회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교회란 교파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이것을 증언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참된 왕이시며 다시 오실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만 구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 – 하나님의 통치 – 를 구현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로마보다 훨씬 오래된 왕가에서 오십니다. 그분은 다윗 왕의 집에서 오십니다. 다윗에게는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 앉을 후계자가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족보에서 나신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게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2-4

마태복음 1:1-17; 2:1-15; 누가복음 23:8-15; 요한복음 1:1-3; 골로새서 1:16; 히브리서 1장; 10:5; 요한복음 12:27; 사무엘하 7:12-16; 로마서 1:1-7.

10 왕의 삶

왕처럼, 독일 속담으로 말하면 “프랑스의 하나님처럼”(wie Gott in Frankreich) 산다! 여기서 주목하는 왕에게는 맞지 않는 속담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형편 속으로, 왕의 영예 없이 삶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짧은 삶, 고된 노동과 자기 부인의 33년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이 장에서 약 700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왕다운 삶을 비추어 주는 몇 가지 생각의 조각일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 간직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700단어로 요약된다면 어떨까요? 무엇이 남을까요? 두세 세대가 지나면 누가 아직 우리를 기억할까요? 저는 물어보지 않으면 제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에 관해서는 흔히 구유와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시간도 똑같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왕의 삶은 그분의 죽음만큼 중요합니다. 이 삶은 너무나 유일하고 귀하며, 너무나 순결하고 선해서, 예수의 죽음은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 없는 삶이 그렇게 끝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사명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분이 오심과 함께 시작을 알렸습니다.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방의 능력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사람들에게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악한 세력들에게서의 해방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로마 점령군보다 더 파괴적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회생활에서 쫓아내는 불치병에서의 해방입니다. 또한 거짓 경건,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경건에서의 해방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없는 성경 지식에서의 해방입니다. 잘못된 기대에서의 해방입니다. 이기심에서. 불신앙에서. 그리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의 해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된 왕의 삶을 특징짓습니다. 한번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물러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를 아셨습니다. 그분의 나라에는 새로워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심장 박동을 가진 마음입니다. 섬기고 가장 낮은 길을 갈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대부분 감추어져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한 평범하고 고된 노동자의 삶입니다. 건축 기술자로 사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기술만 배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순종을 배우십니다. 그분이 오신 그 나라에서는 알지 못하셨던 순종입니다.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의 영원한 조화 속에 하나로 계셨습니다. 땅에서 아들 예수는 고된 삶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언제 건축 일을 시작하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은 맏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관해서는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가족을 책임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서른 살에 예수는 이 삶을 뒤로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분은 세례 요한, 곧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적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메시아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네 편의 생애 이야기, 또는 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네 기록을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읽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읽고 또 읽으십시오. 넷이 합하여 메시아 왕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설교,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능력 있고, 참되고, 삶에 가깝고, 지혜로워서 사람들은 놀라움에 말을 잃습니다. 그분은 저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귀신들이 도망칩니다. 왕이 나가서 땅을 차지하십니다. 전쟁 군주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진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깁니다.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이시면서도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사치 없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자기 집도 없는 삶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늘 의심받고 공격받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릅니다. 여러 가지 동기로 따릅니다. 그분은 기적으로 불어나게 하신 빵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언제나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로서 그토록 필요로 하시는 삶의 가장 깊은 방향 말입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 또는 깨끗해져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분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즉시 낫습니다. 이 왕의 한 번의 손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왕께서 우리를 만지시도록 합시다. 그분께 나아왔던 사람, 그리고 오늘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 누구도 그분은 물리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Just one touch from the King changes everything!

왕의 한 번의 손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요한복음 21:25; 베드로전서 2:22-24; 마태복음 1:21;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6:15; 히브리서 5:8; 마가복음 6:3; 마가복음 9:15; 10:26; 누가복음 4:32; 8:25; 9:43; 마태복음 8:20; 누가복음 5:13; 22:51; 마가복음 6:56.

11 왕의 좋은 소식

왕의 첫 번째 공적 행위는 선포,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와 치유가 그분의 일상입니다. 그분은 군대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왕들에게 흔히 그렇듯이, 왕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사절단이 옵니다. 세례자라고 불리는 요한입니다. 그가 주의 길, 왕이요 메시아이신 분의 길을 닦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길과 집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 사람들은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 자기 삶을 바꾸어야 한다. 낙타털 옷을 입은 광야의 선지자가 선구자로서, 화려함과 영광 가운데 오지 않는 한 왕을 알립니다.

돌이킴은 예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이어 가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평화, 치유, 용서, 자유, 안전, 번영, 안정을 가져옵니다. 메시아 예수 안에 구현된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나라들의 독재와 실패에 대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폭력을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의 독재에 대한 그분의 답입니다. 곧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저편 세계의 권세와 세력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격 자체로 나라의 메시지, 곧 복음을 구현하십니다. 신약성경의 네 생애 기록이 복음서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행적과 말씀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도들이 나중에 그들의 서신에 쓴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지붕을 뚫고 그분의 발 앞으로 달아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셔야 할 때, 그분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분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먼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는 중풍병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무엇보다 가져오시는 것은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와 함께 좋은 소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참으로 도착했습니다. 예수는 그분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셨습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였습니다.

>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사람들이 그분께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읽으셨습니다.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회당 맡은 자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께 쏠렸습니다.

> 그분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증인이니라."

예수께서 친히 그 복음이셨고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옛것을, 죄와 죽음을 뒤에 두고 떠나도록 이끕니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좋은 소식과 예수는 하나입니다 – 하나를 다른 하나 없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예수께서 선포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복음은 …

정의를 세우고, 노예 제도를 없애고, 가난과 싸우고, 병을 고치고, 빚을 탕감하고,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고, 소외된 사람을 받아들이고, 가장 낮은 사회적 지위에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효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마태복음 3:1; 마가복음 1:4; 8:28; 누가복음 3:1-18; 에베소서 2:1-3; 골로새서 1:13; 2:15; 마가복음 2:1-12; 마태복음 1:21; 누가복음 4:16-22; 요한복음 5:24.

12 왕의 시해: 십자가

복음서 기자 요한은 예수를 왕으로 묘사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합니다. 특히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말입니다. 곧 예수의 수난, 그분의 고난 이야기, 체포, 유죄 판결 재판,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에서 그렇습니다.

이 수난은 끔찍합니다. 불의합니다. 수치를 모릅니다. 잔혹합니다. 비인간적이고 짐승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꿰뚫고 믿음은 참된 왕의 즉위를 알아봅니다. 수난 이야기는 이중적인 의미로 메시아 왕의 영화, 그분이 높여지심을 증언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군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시자, 그들은 그분의 대답에 돌풍을 맞은 것처럼 쓰러집니다. 마치 그들이 그분의 발 앞에, 왕의 발 앞에 엎드린 것 같습니다.

왕다운 위엄과 결단 속에서 예수는 그분의 제자 베드로처럼 칼로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아들이신 예수께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분에게는 고난으로 가득한 잔이지만, 성찬에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잔입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십니다. 그의 사위 가야바는 언젠가 – 정치적인 감각은 있었지만 자기 말의 무게는 알지 못한 채 –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얼마나 참된 말입니까. 참된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죽습니다!

이제 예수는 유대인들의 작고 억눌린 세계에서 세계 제국 로마의 우주로 끌려가십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만 있을 때 그는 그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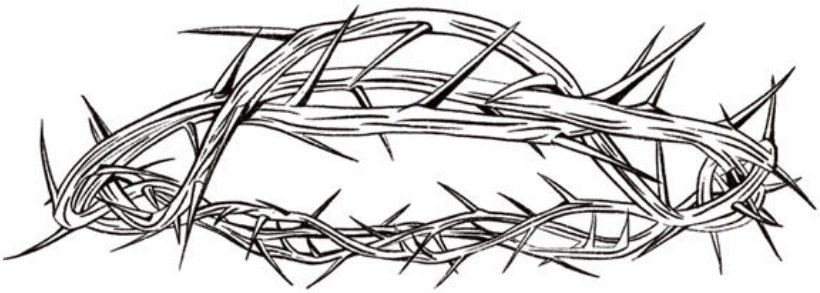
예수는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십니다. 다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십니다. 모든 정치적 요구 위에 있는 나라, 로마 사람들처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늘 세계에서 온 나라입니다. 다른 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하늘 왕의 인격 안에서 땅의 나라의 잔혹한 폭력에 짓밟히도록 자신을 내어 주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가 보여 주는 감각은 놀랍습니다. 로마 사람이요 우상 숭배자인 그가 말하자면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듭니다. 그는 무리에게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는 심지어 십자가 위에 왕의 명패를 못 박게 합니다. 모두가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예수를 고발한 자들은 빌라도 때문에 극도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죽음을,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에 관한 진실을 옹호합니다. 예수께는 아무 죄가 없고, 그분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택합니다. 그들의 참된 왕 예수는 거부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보는 것은 가시로 된 관을 쓰시고, 사람들이 걸쳐 드린 붉은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왕의 피투성이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존엄입니다.

골고다로 그분은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그분의 몸에서 옷을 벗겨 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분이 친히 예고하셨던 대로 그분은 들리십니다. 왕이 그분의 보좌에 앉혀집니다. 고문의 기둥, 나무 십자가입니다.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되고, 일그러지고, 고통으로 가득한 한 남자입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 그분의 외침은 왕다우며, 그분 자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해방과 구속을 주는 외침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빌라도도 아니고 어떤 황제도 아니고, 메시아 왕이신 예수이십니다! 이 처형 장소의 이 사람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속죄의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덮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룹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피 흘리고 찔린 손이 내밀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의 참된 왕, 하늘의 왕, 온 세상의 통치자, 주의 주이십니다!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우리 때문에 보좌를 십자가와 바꿀 준비가 된 분,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분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신다면, 우리 사람들은 말을 잃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파괴하고 멸절하고, 아니 그들과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 버리는 것을 보여 줍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깁니다. 예수는 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역설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앞으로도 걸림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상징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한 종교의 창시자로 삼는 것은 미친 짓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무엇도 미화하거나 낭만적으로 꾸밀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기괴하고, 너무나 모순되며, 너무나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의 기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절정에 이른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와 거기서 일어난 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날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새사람이 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 그의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이집트로 팝니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러운 우회로를 거쳐 부왕이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 37:23-24

요한복음 18장, 19장; 마태복음 26:36-27:56; 마가복음 14장, 15장; 누가복음 22장, 23장; 로마서 3:21-26; 고린도후서 13:4; 고린도전서 1:22-24; 골로새서 1:20; 에베소서 2:16; 빌립보서 2:8.

13 이 얼마나 놀라운 왕인가

(독일어 원문 찬양)

Was für ein König, der sein Land verlässt für mich. Und alles hingibt, was ihm lieb und wichtig ist. Der sich aufmacht und weit in die Fremde zieht, um zu suchen die, die er von Herzen liebt. Der nicht ruht bis auch der letzte seiner Freunde bei ihm ist, der voll Sehnsucht und voll Freude mich in die Arme schließt.

Wer so ist, der ist wahrhaft königlich. Diesen König liebe ich.

Was für ein König, der ein großes Festmahl hält für all die Schwachen und die Armen dieser Welt. Der uns seine Brüder, seine Schwestern nennt, weil er wie wir das Leben hier auf Erden kennt. Was für ein König, der aus Liebe seine Krone niederlegt und sie eintauscht gegen eine, die aus Dornen ist.

Was für ein König, der sein Leben für mich gibt, wo ich doch nicht von edler Herkunft bin. Was für ein König, der dem Tod ins Auge sieht und ihn als Erster ein für alle Mal besiegt. Was für ein König, der den Weg geht, der noch nicht gegangen ist, weil dieser Weg für uns der Weg in die Freiheit ist.

로타르 코세(Lothar Kosse), 2011년, 허락을 받아 게재함.

14 무덤 속의 왕

왕은 특별하게 장사됩니다. 큰 행렬과 품위 있는 무덤과 함께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들은 본보기로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둡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십자가에서 멀지 않은 공동 무덤에 버려집니다. 그들의 몸은 짐승의 사체처럼 다루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들은 꺾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의 주가 매달려 계십니다. 두 범죄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처형의 드라마 속에 작은 빛 한 줄기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곧 공회 의원 한 사람이 예수의 숨은 제자입니다. 이제 그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합니다. 부유한 사람으로서 그는 미리 준비하여 자신을 위한 무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으로, 그 앞에는 몇 톤이나 되는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은 바닥에 판 홈을 따라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요셉은 큰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들어가 시신을 달라고 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그렇게 빨리 죽으신 것에 놀라면서 허락합니다. 요셉은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혼자였는지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를 세마포로 쌉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해가 질 무렵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자기 무덤에 모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새 무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언(미리 한 말)이 예수의 삶과 죽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일입니다. 심지어 장례에 관해서도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사도들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장사되셨다는 것을 늘 언급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사소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장사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가사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신체 기능이 되돌릴 수 없이 멈췄습니다. 예수라는 장은 무덤과 함께 일단 닫혔습니다.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면, 그분을 무덤에 모신 일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다음 로마 사람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특수 부대가 지켰습니다. 유대인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 가지 못하게 확실히 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서는 위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달리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몇 번이나 자신의 폭력적인 죽음에 대해, 그러나 또한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일까요?

고대 기독교의 신앙고백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시고, 죽음의 나라에 내려가셨으며". 생명의 주께서 친히 죽으시고 죽은 자가 되심으로써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요새 안으로 뚫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는 나중에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다음 죽음 저편에서, 그분이 죽음의 나라로 내려가셨을 때 일어난 일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도 우리를 위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7-9

사도행전 2:22-46; 3:15; 히브리서 2:10; 마태복음 27:57; 마가복음 15:43; 요한복음 19:38; 이사야 53:9; 고린도전서 15:4; 베드로전서 3:18-22

15 죽음의 나라에 계신 왕

왕들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왕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폭력적으로 처형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바위 무덤에 안치되셨고, 무덤은 큰 돌로 막혔습니다.

사람은 몸 이상의 존재입니다. 죽은 뒤에도 사람은 계속 살아갑니다. 그의 의식, 그의 영혼은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사람 전체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저세상에서도 남아 있으며 온전한 인격입니다. 물질적이고 죽을 몸이 없을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 밖에서도, 증거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정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 밖에서 존재할 수 있고, 모든 감각으로 보이지 않는 저편 세계의 주변을 지각할 수 있다는 정황입니다.

이 저세상이 죽음의 나라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지하 세계를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그곳에는 의인들을 위한 영역과 불의한 자들을 위한 영역이 있습니다. 앞의 영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노아 이전과 노아 시대에 사람들 사이에 섞였던,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끝을 내시게 된 데에 결정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전합니다. 고대 교회는 그들의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까지 주일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셀 수 없이 많이 함께 소리 내어 고백합니다. 죽음의 나라에 내려가셨으며. 바로 그곳,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세계로, 그곳으로 내려가 그 안으로 그분, 그리스도, 왕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독자에게는 이것이 이상하고 낡은 이야기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꽤 단순합니다. 창조된 보이는 세계와 창조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아는 말과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상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은 위에 있습니다. 지하 세계, 곧 죽음의 나라는 언제나 아래, 땅 아래에 있습니다. 땅 아래는 무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있는 저편의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안식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스올을 그곳이 아름다워서 가고 싶은 장소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스올은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죽음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신약성경은 지하 세계를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장소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하데스는 지하 세계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지옥과 구별해야 합니다. 하데스와 지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밖에서 보면 조용해졌습니다. 고문당한 예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께서 내려가셨습니다. 죽은 자로서만 그분은 이 죽음의 나라로 내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군주와 마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옛 뱀의 구덩이로 내려가셔서 그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분은 강한 자를 제압하시고 그의 세간을 빼앗으셨습니다. 갇힌 자들을 해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스올로 내려가신 것은 계속 고난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시고, 해방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깊은 감옥으로, 타락한 천사 군주들에게로 그분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그들의 어둠의 군주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을 뜻했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꾸며 낸 그분의 죽음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패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뜻밖에도, 그들은 이제 결코 그분을 만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승리자를 만나고, 그분의 입에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왔다는 말을 듣습니다. 죽을 인간들이 어둠의 세력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이제 이루어져 죄인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왕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스올 또는 하데스에는 이 십자가 처형의 날까지 죽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나라에 있었지만 하늘의 낙원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약속된 왕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욥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오십니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고,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그들은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머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끌어 내어 하늘의 낙원으로 들이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로 그날에 하데스에서 낙원으로 향하는 큰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의 한 강도에게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모든 사람을 하늘 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왕을 따라갑니다.

뒤에 남는 것은 스올의 폐허와 그 안에서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리고 배제할 수 없는 일은, 그분이 그곳에서 구원을 선포하신 자들도 지하 세계에서 해방하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 그분을 부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이 자비로운 영광의 왕은.

왕께서는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떠맡으셨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가져가셔서 친히 무덤으로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우리는 살아도 됩니다. 새롭고 영원하며 죽지 않는 생명을 삽니다. 그분은 내려가셔서 죽음의 요새를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의 생명은 이제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걸음, 왕의 삶 전체가 구원에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위해서만 나타나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자기 백성을 위해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바위 무덤은 그것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의 싸움은 죽기까지

치러졌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이 왔습니다. 그분은 스올을 약탈하시고, 갇힌 자들을 시온산, 곧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이제 최종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자기의 승리를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19-20 (독일어 성경 번역본에서 번역)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8-10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17-18

사무엘하 22:6; 욥기 17:16; 시편 16:10; 30:3; 68:16-24; 116:3, 8-9, 15; 118:17-27; 이사야 14:9-15; 38:18; 45:2; 에스겔 31:16; 호세아 13:14; 스가랴 9:9-12; 마태복음 12:28-29, 40; 사도행전 2:22-36 (시편 16:10-11); 로마서 10:6-10 (신명기 30:12-14); 골로새서 1:16; 베드로후서 2:4.

16 왕의 부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입니다. 특별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누구나 그것을 압니다. 죽음, 곧 우리의 유한함과 덧없음은 우리가 만족하고 싶은 지평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지음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왕께서 전쟁에 나가셨습니다. 홀로, 아버지의 명을 받아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죽음의 권세와 맞서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패배를 당하셨습니다. 싸움에서 지셨고, 바로 그로써 다시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생명으로 뒤바꾸셨습니다. 사시는 동안 그분은 몇 사람을 생명으로 다시 불러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아버지에 의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예외 없는 규칙이 폐지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이 고난을 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들과 함께 무거운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 펼치셔서 예수를 생명으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잔인하고 냉혹한 “아니요”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분명한 “예”입니다. 그리스도께, 생명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원수처럼 행동하는데도 말입니다. 또는 우리의 창조주께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예수는 사람들의 적대와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의 적대와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대신 드리는 제물이 되십니다. 부활에서 죄책의 문제, 곧 우리 죄의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것이 인 쳐집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부활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세력이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 무덤에서 얼마나 놀라운 왕이 나오십니까!

왕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승리하여 돌아오셨습니다. 새 생명의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죽음을 뚫고 나오셔서 닫힌 바위 무덤을 뒤로하십니다. 그분은 무덤의 세마포를 가지런히 개어 두고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알던 바로 그 예수이십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의 흉터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영원한 기념이요 표징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새로운 존재로 사십니다. 그분은 닫힌 문을 통과하시고, 장소를 옮기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시고, 자신을 만지게 하시며, 영원히 참된 사람이시고 또 그렇게 남으십니다.

무덤 앞의 몇 톤이나 되는 돌이 치워집니다. 예수께서 나오실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여인들이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동화일까? 신화일까? 이 역사적 사실을 반박하려고 많은 것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의 어떤 사건도 이것만큼 잘 입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모든 것이 서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격자가 부활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죽을 만큼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이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보고 듣는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메시아 왕의 부활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차원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차원은 죽음과 덧없음을 영원히 무덤 속에 남겨 둡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존재가 놓여 있습니다. 넘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새 창조가 우리 왕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얻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생명을 걸고 얻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생명으로 끌어냅니다. 살 가치가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이겼습니다 – 그분을 통하여.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10-11

요한복음 2:22; 사도행전 2:24, 32; 3:15; 로마서 4:24-25; 6:4, 9; 8:11, 34; 10:9;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1:10; 에베소서 2:1-6; 골로새서 3:1; 디모데후서 2:8.

17 왕께서 하늘로 오르심

왕이신 예수의 승천은 도피가 아닙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기신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실로 십자가나 무덤이나 부활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사건 덕분에 봄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데, 그날은 아버지의 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의 삶과 죽음에 면류관을 씌우는 사건입니다.

"승천"은 독일어로 "힘멜파르트(Himmelfahrt)", 곧 직역하면 "하늘로의 여행"이라서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 세계로, 초월의 세계로 건너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세계는 우리의 보이는 내재적 세계와 전혀 다르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개선 행진 가운데 하늘들을 지나가셨습니다. 이 저편 세계의 모든 존재가 절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어집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전혀 다릅니다. 이제 십자가가 그분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 이르는 길을 닦으시고 여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맞아들이기 원하십니다.

먼저 그분이 거기서 왕의 아들처럼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날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분은 기쁘게 아들을 맞으십니다. 하늘이 기뻐합니다. 모든 천사와 하늘의 존재들이 기뻐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땅에서 33년을 보내신 뒤 그분은 하늘 궁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분은 어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건지심,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새 창조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주의 통치 궁전에서 그토록 고대되었고 이제 영접을 받으시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다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직접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승천 사건이 뜻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 아버지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맞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왕이신 예수를 맞아들입시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영접합시다. 그분은 우리 삶에도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덧붙이자면, 그분이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구름 속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 두 천사가 거기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눈에 보이게, 구름 가운데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18-19

마가복음 16:19-20; 누가복음 24:50-53; 사도행전 1:4-11; 히브리서 5:10; 4:14.

18 왕의 대관식

대관식은 화려한 의식입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여왕과 모든 왕에게 단 한 번뿐인 사건입니다. 지위 높은 손님들이 초대됩니다. 궁전이 장식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간과 시간 밖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의 세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판타지와 공상 과학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 예수께서 하늘의 저편 차원으로 들어가시고 영접받으시고 대관식을 치르신 일은, 상상할 수 있다 해도 겨우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 승리의 관입니다! 아마 올리브 가지로 엮은 관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어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대관식 잔치는 열흘 동안 계속됩니다.

우주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그분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를 선물하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아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이집트에서 바로를 대신했던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영예는 가족 간의 호의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자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신 깊이만큼 그분은 높여지십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 고된 노동, 가진 것 없음, 멸시받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늘의 왕이신데도 그랬습니다! 모든 존재의 중심에 있는 이 영예의 자리와 가장 높은 영예의 칭호만이 그분께 합당합니다.

이미 다윗 왕이 이 신비로운 말을 기록했습니다.

>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은 지나간 옛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그것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만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성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주님, 이 Lord of Lords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카타콤과 숨는 곳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
>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
>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는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내리셨던 그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덧붙이자면, 부활 때와 마찬가지로 높아지신 메시아 왕에 대해서도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한때 광신적인 열심을 품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 버리려는 사람은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필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심판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갑자기 그분의 하늘 영광의 광채 속에 서게 됩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뒤에 그 눈이 고쳐집니다. 이 만남의 결과로 바울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 즉시,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는 예수를 메시아와 주로 선포합니다. 그는 단번에 이 인물이 예언에 묘사되고 예고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맞아떨어졌습니다.

바울보다 앞선 또 한 사람의 목격자는 제자 스데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돌이 그에게 쏟아질 때 그는 열린 하늘을 봅니다. 예수를 봅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 가운데 서 계시며, 죽어 가는 순교자를 맞아들이시려고 그를 향해 몸을 굽히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그분의 다스리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황제들과 왕들과 폭군들이 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그분의 통치는 사심이 없고, 의롭고, 참되며, 사랑이 넘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강제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은 폭력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왕들의 왕이신 예수는 그분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분을 아는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목표에 이르십니다. 한 말씀이면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이 멈춥니다.

아버지께서 그분께 보좌를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 삶의 보좌도 받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는 보좌를 강탈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보좌를 누가 차지할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사람들, 우상들, 종교들, 중독들, 두려움 –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이 우리 삶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만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다스리심입니다. 미래가 있는 유일한 다스리심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저는 어쩌면 때때로 저의 메시아 왕 예수의 능력 있는 위대하심과 영광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보좌를 그분께 거듭거듭 새롭게 넘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는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안으로 거듭거듭 받아 주십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13-14

신약성경에서 이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64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7

예수께서는 하늘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통합니다. 바로 그분을 죽인 그 사람들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7-10

히브리서 2:7, 9; 시편 10:16; 예레미야 10:7, 10; 사도행전 2:34; 히브리서 1:13; 창세기 41:41-46; 에베소서 4:8-10; 시편 110:1; 빌립보서 2:5-11; 베드로전서 3:22; 사도행전 9:1-22; 7:54-60; 마태복음 28:18; 누가복음 11:23.

19 나의 영광의 왕

(독일어 원문 찬양)

Der Wind, der in mir weht

Das Wort, das nie vergeht

Alpha und Omega

Der sein wird, ist und war

Berge verbeugen sich vor seinem Angesicht

Ein Wort und es geschieht

Er kommt und Ängste fliehn

Das ist mein König, König der Herrlichkeit

Sein ist das Reich, die Macht in Ewigkeit

Nichts muss ich fürchten, solange ich weiß

Dass der König der Könige nah bei mir bleibt

Der Weg auf dem ich geh

Das Licht auf meinem Weg

Meine Heimat, mein Zuhaus'

Deine Nähe füllt mich aus

Das ist mein König, König der Herrlichkeit

Sein ist das Reich, die Macht in Ewigkeit

Nichts muss ich fürchten, solange ich weiß

Dass der König der Könige nah bei mir bleibt

토비아스(Tobias) / 자무엘(Samuel) / 훈트(Hundt) / 하르프스트(Harfst)

20 왕 –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시편 2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왕의 시편이므로, 우리는 그것이 다윗의 시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묘사되는 왕은 다윗일 수 없고, 그의 아들 솔로몬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왕을 가리킵니다. 시편 2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며, 동시에 자기 직분을 수행하도록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조금 긴 이 장에서는 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전면에 섭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왕은 육신을 입은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구에 관한 것인지 모르고 시편 2편을 읽으면, 이 시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로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편의 "낳음"은 즉위입니다. 보좌에 오름으로써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
>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
>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역사적 상황과는 달리 여기서 다스림은 유다나 이스라엘에만 미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미칩니다. 사람들은 세계 지배를 꿈꾸었을까요?

모든 민족을 한 유일무이한 왕 아래 하나로 모으고, 그 왕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왕의 원형이요 오실 왕의 원본인 다윗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왕이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서,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올 왕입니다.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나올 왕입니다. 시편 2편은 미래를 내다보며 문자 그대로의 성취를

기대합니다. 이 시편은 과장된 희망 사항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졌고,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3:32-34이 보여 주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성취 속에 살고 있습니다.

>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
>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
>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다윗에게, 그리고 그로써 그가 왕이었던 백성에게 주신 약속, 곧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한 세계 통치를 시작할 아들을 갖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이사야 55:3).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온 세상에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유대인 예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취이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취를 넘어서는 성취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그분은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에서 그러한 분으로 확증되셨습니다.

> …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 로마서 1:1-4

시편 2편은 즉위 의식을 묘사합니다. 복음서 기자 마가는 이것을 받아들여 자기 복음서에 녹여 냅니다. 시편 2:7-8의 왕의 즉위는 특히 마가복음 1:11과 9:7에

비치는데, 유대인 독자들이 아마 기대했을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다음 15:39에서 완성됩니다.

시편 2편	마가복음
왕의 기름 부음과 영의 은사 2:2, 6	예수를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 1:11
시온산에서의 즉위 (왕이 보좌에 오름) 2:6	예수께 (그리고 요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늘이 갈라짐) 1:11과 9:7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2:6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심 1:11과 9:7
왕의 통치의 정당화와 권한 부여,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심 2:7	헤르몬산에서 변모하실 때의 예수의 영광 9:2-3, 7
통치권 이양 – 예루살렘 왕의 세계 통치 2:8	귀신을 쫓아내심과 기적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권세
통치 표장의 인수 (철장 – 질그릇을 부숨) 2:9	예수의 막대기는 그분의 복음 선포 1:14 (이사야 11:4 – "그의 입의 막대기"에 근거) 예수의 즉위 – 골고다로 가는 십자가의 길 – 보좌인 십자가 15:16-19, 39

이 연구는 네나드 보조비치(Nenad Božović)에게서 빌려 왔습니다. 논문집 Christ of the Sacred Stories(2017년, 튀빙겐)에 실린 글입니다.

맨 첫 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침내 시편 2편의 메시아가 역사 속의 어떤 인물인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묘사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그 선은 곧장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마가의 첫 고백에 목소리를 합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15:39)

처음에는 시편 2편에서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며, 본질적이면서도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의미를 지닌 것을 그에 관해 선언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11). 복음서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9:7).

예수 위에 성령이 내려오신 일은 시편 2편의 즉위에 비추어 보면 “예수를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0). 노아 때 비둘기는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비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게 해 줍니다(올리브기름 = 성령으로 기름 부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예수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메시아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권세를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시편 89:20). 또 하나의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42:1).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유일무이하며 사랑과 서로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관계를 능가하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왕 되심을 전에 없던 차원과 충만함으로 채웁니다.

2:8에 언급된 왕에게로의 통치권 이양은 마가복음 1:11에서 성령과 하나 되심을 통해 일어나며 예수의 권세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권세” 있는 자로서 가르치십니다(1:22, 27). 그분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데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1:24). 이것은 시편 2:9에 나오는 왕의 권세와 비슷합니다. 그분의 권세는 또한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곳에 놀라움과 감탄이 따르고(1:27), 그분의 사역 소식이 널리 퍼지며(1:28), 기적이 많아지는 데에서도(1:29-34)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을 질그릇처럼 부수는 시편 2:9의 철장은 이사야 11:4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의 “그의 입의 막대기”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1-15의 예수의 즉위에 적용하면, 예수의 막대기, 곧 왕의 홀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홀은 그분의 복음 선포입니다(1:14).

2:8에서 왕에게 민족들이 소유로 약속되고 세계 통치권이 넘겨집니다. 이 약속을 마가복음 1:11의 맥락에서 보면, 어떤 민족들이 예수께 소유로 약속되었는지, 그리고 이 맥락에서 “땅 끝”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게 됩니다. 한 가지 답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민족이 예수의

"소유"가 되는 민족들입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선포됩니다. 즉위하신 메시아 예수의 소유가 되는 이 민족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15:39의 십자가 아래 있던 로마 백부장입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 권력이 커지는 대신, 마가복음의 즉위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메시아는 정치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앞에 서 계신 분은 고난받으실 메시아입니다. 헤르몬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기 전에 예수는 8:31-33에서 한 번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변모하신 뒤에 9:30-32와 10:32-34에서 두 번 더 예고하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결코 자신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다른 표현을 늘 쓰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39에서 예수의 즉위의 마지막 단계는 그 전에 여러 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로, 한 여인이 장례를 위해 예수께 기름을 부은 일로, 그다음 빌라도 앞의 재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11:1-10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나귀를 타신 일에서, 다윗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솔로몬의 즉위와의 평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열왕기상 1:38). 이것이 11:10에 나오는 무리의 외침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를 설명해 줍니다. 이 외침은 그들이 다윗의 집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음을 보여 줍니다.

수난 속에서 예수는 헬레니즘 시대 봉신 왕의 소품으로 분장당하십니다. 자색 옷과 가시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인사는 통치자 앞에서 하던 통상적인 경의의 인사를 나타내며 "Ave Caesar"와 비슷합니다. 장면 전체가 왕의 의식을 희화화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7:29에 따르면 갈대가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져 "왕의 홀"이 됩니다. 이렇게 왕의 의식을 희화화함으로써 군인들은 예수를 비웃고, 그분을 정당한 통치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일(15:22)은 예수의 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 이렇게 시온과 대조되는 모습이 됩니다. 시편 2편에서 시온에서의 왕의 즉위가 정치 권력을 뜻하는 반면, 골고다 언덕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 왕이

즉위하십니다. 십자가 자체가 왕의 보좌를 나타내며, 그 위에서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십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시편 2:8의 "민족들을 소유로 주다"라는 표현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열림은 예수의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민족 앞에 계시됩니다.

마지막으로 15:39의 백부장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달리 백부장은 믿기 위해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 아래에서 믿음에 이릅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만 독자는 예수께서 누구시며 어떤 메시아이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즉위가 완성됩니다.

시편 2편과 마가복음을 지나온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말은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거룩한 성경은 서로 엮여 있으며 깨뜨릴 수 없는 하나를 이룹니다. 하나를 다른 하나 없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실재입니다!

왕은 오셨고,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머지않아 온 세상이 따르게 될 이 부르심을, 지금 여기서 조건 없이, 온 세상 앞에서 따릅시다.

>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
> 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영원한 언약인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입니다.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12-16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10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시편 2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편 110:1-2

왕의 시편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2; 20:6; 84:9; 89:38; 132:10

21 왕의 선물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떠나시면, 그분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 제자들이 그분 없이 지내야 하면, 그분이 영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대리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수와 너무나 하나이시고 너무나 동일시되셔서,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영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인격이십니다. 편재하십니다. 예수는 이제 관을 쓰신 주와 왕으로서 이 영을 통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직접 함께 계십니다. 곧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영을 선물로 주신 이날을 위해서도 독일에는 오늘날까지 공휴일이 있습니다. 주말 전체가 휴일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부활절, 곧 예수의 부활과 오순절 사이는 오십 일입니다. 사십 일 뒤에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열흘 뒤에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영을 선물로 주시고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늘 세계에서 열흘 동안 왕의 대관식 잔치와 즉위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그 주민들이 환호합니다. 아들이 돌아오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셔야 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축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와 함께 –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이 영은 왕의 손이요 눈입니다. 온 땅에 보내지셨습니다. 영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영은 어디서나 일하십니다. 찾으시고, 도우시고, 해방하시고, 깨우치시고, 재앙을 막으시며, 불의가 끝없이 넘쳐 나는 곳에서는 심판도 가져오십니다.

이 영을 통하여 그분, 메시아 왕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실제적입니다. 그분께 충성하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나라, 곧 – 왕께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동안에는 –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세상의 큰 자들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자주 억압을 받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옛날 예수 자신처럼 고난받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왕께서 보내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은 그분이 왕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신 사람으로서, 오시기 전에 그리고 세상이 있기 전에 가지셨던 모든 위엄과 하나님의 부요를 다시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이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이 땅에서 증언하시고 확증하십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손을 뻗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살아 계신 이 하나님의 영 – 또는 메시아의 영 – 은 그분을 땅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과 굳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이 하나 됨과 사귐에는 거리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영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는 곳이면 어디서나 메시아 왕을 증언하십니다.

영은 제자들이 왕께 충성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인도자, 그들의 코치, 그들의 변호자요 대언자이십니다.

이 영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농담도 들립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전혀 대수롭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그분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령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왕을 만나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 집으로 돌아오도록 일하십니다. 그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망쳐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들입니다. 또한 자신도 똑같이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의 구원이 걸린 일에서 예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최전선에서 일하십니다. 특수 안경을 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컬러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놀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왕께서 이 영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8-10

요한복음 14:18, 28; 16:4, 7; 사도행전 1:5-8; 2장; 5:32; 요한계시록 1:4; 5:6; 고린도후서 3:17.

22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요 선물이신 왕

고대의 선하고 이상적인 왕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존경과 충성 같은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고대의 이상적인 왕은 신하들의 안녕을 위해 힘쓰는 너그러운 은인입니다. 그는 다른 여러 방법과 더불어 눈에 띄는 선행으로도 다스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현실이라기보다 상투적인 이미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곧 왕이신 메시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때는 왕의 모티브가 많든 적든 늘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으로서 말입니다.

로마서는 여러 곳에서 왕의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 바탕을 맨 처음 1:3-4에 놓습니다.

> …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이것으로 거듭거듭 돌아오고, 그 위에 쌓아 갑니다. 서신은 또한 왕으로 다스리실 분, 민족들이 소망을 둘 분으로 끝을 맺습니다(로마서 15:7-13). 그분의 고난과 희생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침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보좌를 선물하심으로써 우주의 통치권을 선물하십니다. 태초의 아담의 다스림은 불순종과 죄와 죽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그와 반대로 순종과 의와 생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죽음은 그분을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셨고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즉위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리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강령과 같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8장과 서신 전체에 걸친 메시아적 대화입니다.

로마서 5:1-11은 그때까지 말한 모든 것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그다음에 오는 것의 바탕입니다. 이 본문은 1절과 11절에서 각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서신 전체가 1:1-7과 15:7-13 사이에 왕의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의 이 본문은 왕의 선행 또는 은혜 베풂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문에 특별한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처음 독자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탁월한 왕의 선물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해방하고, 강하게 하며, 지켜 줍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왕은 자기 백성이나 한 도시에 평화와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니라. 그분, 왕이신 은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습니다. 왕의 거처로 들어갈 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도 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렇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자, 또는 원수였던 자에게 이 출입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께서 제물을 드리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고대의 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은 그분 자신이며,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그럴 각오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왕은 그것을 자기 신하들에게, 특히 자기 군인들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은혜 베푸는 왕의 모든 통상적인 틀을 뛰어넘는 것은 여기서 누가 그 은혜를 입는가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는 이들은, 흔히 왕들의 은총을 입던 의롭고 합당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죄인들, 원수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큰 놀라움입니다. 한 왕이 자기 원수들을 위해 죽습니다. 그리고 고대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를 섬기리라고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거기서는 선물이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은혜 베풂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 왕의 대화 안에서는 고난이라는 주제도 다루어집니다. 왕의 선물은 보통 고난을 끝내는 것을 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난이 남습니다. 고난은 메시아적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가서야 완전히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견디는 것, 그리고 고난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왕께, 우리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의 표현 방식입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뢰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로써 우리 주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니라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신뢰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 자유롭게 나아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자랑스럽게 의지하느니라

7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곧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매우 드무니라 참으로 정말 선한 사람을 위하여는 혹 누가 감히 죽기도 하려니와

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율법을 어기는 자였을 때에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보이셨느니라

10 실로 그러하니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은즉 이제 그와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리라

11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 주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말하노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이라!

로마서 5:1-11 (독일어 성경 번역본에서 번역)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10-12

23 왕의 부요

왕은 부유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덧없는 세상에서 부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백성에게서 빼앗은 것이라면 그 부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소수만 부유하고 다수가 가난하다면 말입니다.

메시아 왕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받으시는 상속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받으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부는 물질적인 재산만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에서도 사람은 가난하거나 부유할 수 있습니다. 선함, 은혜, 사랑과 의, 진실함과 친절함, 너그러움과 지혜는 왕에게 바라는 장점입니다. 예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사셨습니다. 이 성품은 그분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되셔서도 그분은 복음서가 묘사하는 그대로이십니다.

권력과 부는 흔히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언제나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부요는 금과 은과 암호 화폐를 능가합니다. 그분의 부요는 죽음과 덧없음 저편의 새 창조입니다.

그분이 위하여 죽으셨고 신실한 제자로서 그분께 헌신한 사람들을 그분이 자신의 부요로, 자신의 귀한 소유로 여기신다는 것을 읽으면 감동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가장 큰 부요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삶을 부요하게 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가난할 것입니다.

예수는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께 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과 그분의 모든 부요를, 그분의 영예의 자리를 나누십니다. 한 성경 말씀이 말하듯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서 드러났는지 압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것에 관해서라면 우리, 또는 우리 대부분은 내놓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면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자가 되신 왕이십니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왕자와 거지』는 왕자 에드워드가 거지 소년 톰과 옷을 바꿔 입는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착오로 톰으로 오해받고 거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빈약한 비유이지만 그래도 들어맞습니다. 예수는 하늘의 영광, 영원한 광채를 뒤에 두고 오십니다. 그분은 그것에 매달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르시려고 자원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진심이신지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요가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오셨던 곳에 다시 계십니다. 가지셨던 모든 것을 그분은 되돌려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으로서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분의 부요는 그분 자신의 영광, 곧 주의 영광(독일어로 HERRlichkeit – "주(HERR)"와 "영광(Herrlichkeit)"을 겹친 말)입니다. 그분의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를 전율하게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섬깁니다. 천사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에 관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는 너무나 두려워서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죄 있는 사람이로다. 나의 눈이 본래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 눈으로 뵈었음이로다.

메시아 왕은 어린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자와도 같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야성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며, 친절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로 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크십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사야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분의 부요는 우리의 부요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람들에 관해서라면 너그러우실 뿐 아니라 아낌없이 쏟아부으십니다. 길을 나서서 이 부요를 알아갑시다. 세금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나라의 모든 주민에게 선물을 주는 왕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왕입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와 그들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레미야 10:6-7

시편 50:10; 히브리서 1:2; 13:8; 고린도후서 8:9; 이사야 6:1-7; 요한복음 17:22; 에베소서 2:6-7.

24 우리의 왕: 중보자요 대언자

왕은 신들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로 여겨졌습니다. 고대의 세계관과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의 중재자 역할은 최고위 제사장의 기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복음에 관해서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는 Pontifex maximus라는 칭호를 넘겨받은 최초의 황제이며, 그로써 황제로서 종교의 수장도 됩니다.

Pontifex maximus라는 칭호는 원래 고대 로마의 신들 숭배를 지키는 최고 수호자를 가리켰고, 그다음 로마 황제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시대에 정치와 종교는 긴밀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바벨의 니므롯부터 이집트의 바로들에 이르기까지 종교와 정치는 한 손에 있었습니다.

Pontifex는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들의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기능과 영예로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분은 옛 언약의 아론 계열 제사장 직분의 끝일 뿐 아니라, 제사장 직무와 제사를 갖춘 모든 신들 숭배의 끝이십니다. 그런 숭배는 로마 사람들과 그 밖의 민족들에게 흔했고, 어디에나 있는 일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말하자면 Pontifex maximus로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힘쓰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을 구하십니다. 그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나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힘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고, 그 모든 것과 함께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맡겨져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평화를 이루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는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으셨고 아론 가문에 속하지 않으시며 왕의 지파인 유다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 반차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론 계열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또는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고, 믿는 자들의 조상인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곧 한 사람 안에 왕과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이중 기능" 속에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과 왕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24-25

베드로전서 3:18; 히브리서 2:17; 4:14-16; 5:5-10; 7:25; 8:6; 9:15; 12:24; 로마서 8:34; 디모데전서 2:5; 창세기 14장; 시편 110:4.

(독일어 원문 찬양)

Heilig, Heilig, das Lamm Gottes

Das geopfert ist

Lob und Ehre, sei Dir dem König

Auf dem Gnadenthron

Die ganze Schöpfung singt und

Preist dich, den König

Du bist mir alles Herr

Und ich will dich ehren

가사: 아냐 레만(Anja Lehmann)

25 왕의 지혜

백성에게 그들의 왕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문에 불과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왕은 또한 그의 백성의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그가 했습니다. 그의 판결은 사람들에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되고 옳고 의로워야 했습니다.

오래전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둘 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한 아기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기의 어머니는 몰래 죽은 아기를 살아 있는 아기와 바꿔치기했습니다. 속은 어머니는 그것을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도 없이 어떻게 그 속임수를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증인도 없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해야 했을까요? 솔로몬은 아기를 둘로 자르려고 칼을 가져옵니다. 한 여인에게 반쪽씩 주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반응을 보고 그는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알아차립니다. 진짜 어머니는 속인 여자가 아기를 차지하게 되더라도 아기를 살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속인 여자에게는 아기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와 권력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가 그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한번은 하마터면 그냥 읽고 지나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스바 여왕)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예수는 그분의 지혜로 깊은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면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서기관들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지혜의 영이 그분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었고, 순결했으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붕 떠서 지나가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가장 맑은 샘물과 같았습니다. 상쾌하게 하고, 살리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그 지혜는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길 없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돌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로 이끕니다. 참된 출애굽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그분은 길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 곁에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경험을 일상에 옮겨 좋은 결정을 내리는 자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정입니다.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오늘은 고통스러운 축소와 포기를 뜻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왕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지혜의 복을 빕니다. 그들의 과제는 특권이라기보다 도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 통치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해결책,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정치인들에게도 솔로몬의 간구를 되풀이할 수 있도록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왕, 모든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왕께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라지 않고 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은 실패와 죄는 그분이 지혜를 주지 않으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누어 주시는 왕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왕입니까! 그분에게서 배웁시다. 지혜는 지식 이상입니다. 그것은 왕 곁에서 사는 삶입니다.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혜라고 불리는 분과 교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17

열왕기상 3:5-10; 16-28; 4:21-5:18; 누가복음 11:31; 골로새서 2:3; 마가복음 1:22; 잠언 1:7; 8:22-30; 고린도전서 1:30; 야고보서 1:5; 3:13-17; 요한계시록 5:12.

(독일어 원문 찬양)

EIN KÖNIG VOLLER PRACHT,

Voll Weisheit und voll Macht.

Die Schöpfung betet an, die Schöpfung betet an.

Er kleidet sich in Licht. Das Dunkel hält ihn nicht

Und flieht, sobald er spricht, und flieht, sobald er spricht.

So groß ist der Herr, sing mit mir.

So groß ist der Herr.

Ihn preisen wir.

So groß, so groß ist der Herr.

Von Anbeginn der Zeit bis in die Ewigkeit

Bleibt er derselbe Gott, bleibt er derselbe Gott.

Als Vater, Sohn und Geist, den alle Schöpfung preist,

Als Löwe und als Lamm, als Löwe und als Lamm

가사: 아르네 코퍼만(Arne Kopfermann)

26 예수의 왕의 법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왕이란 좋은 법을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스스로도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시라면 그분은 어떤 법을 제정하셨을까요? 그분은 입법자이셨을까요? 예수는 이른바 산상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서 그분의 유대인 동시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셨습니다.

>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원수 사랑을 명령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예수의 수난 이야기는 그분이 그분의 계명을 스스로도 지키셨음을 증명합니다. 그분이 구하시기만 하면 열두 군단의 천사들이 예수를 구하려고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도, 그분은 구출되기를 포기하십니다.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 죽음의 시간에 그분은 자신을 고문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메시아 왕은 법이 몸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나라의 선언문인 산상설교에서, 그분은 원수 사랑이 하늘 아버지의 본성임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했음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계명뿐 아니라 원수 사랑의 계명도 사셨습니다. 그분처럼 행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조건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신 분이 그분의 아버지의 이 본성을 구현하십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나라의 심장 박동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그분의 나라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왕으로서 예수는 그분의 백성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친히 본으로 사셨습니다.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그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씁니다.

>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왕의 법을 참으로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이 왕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그대로의 분이셨습니다. 입법자가 될 권리를 과시하려고 내린 제멋대로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원수 됨을 이기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에서는 그분의 법이 효력을 가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곳에는 그분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자유의 법입니다. 곧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웃을 그의 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왕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짐에 대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이런 왕을 모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왕의 법, 곧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참으로 따르면 선하고 옳게 행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2:8

마태복음 5:43-48; 26:53; 누가복음 23:34; 요한복음 1:1-3; 골로새서 1:13; 요한복음 13:34; 야고보서 1:25; 2:8, 12; 갈라디아서 6:2.

27 왕의 사명

왕은 바람을 말하는데, 그것은 명령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자기 신하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들은 그가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행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실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 “예수를 뵈옵고 (제자들이)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
>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
>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으로 여기 하늘과 땅의 왕께서 서 계십니다 – 이분 말고 누가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이 권세를 땅의 왕들과 민족들을 굴복시키는 데 쓰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원수 사랑의 계명을 내리시는 분은 사람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이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그분의 권세를 쓰십니다.

결국 그분의 권세와 권위는 모든 것을 아우르며 실제적입니다. 이 왕은 어느 날이든 이 행성의 역사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그분의 권세와 다스림을 보고 느끼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다릅니다. 그분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확신에서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왕의 꿈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선물하시려는 것입니다. 은혜, 용서, 영원한 생명, 자유, 안식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계신 이 왕을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제자에게는 사람들을 이 왕께 인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글자 그대로 상상해 봅시다. 한편으로 우주의 왕의 총애를 입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니 사적으로까지 알며,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언제나 끊임없이 그분을 알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묻거나 우리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을 데려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왕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그분께 크게 환영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메시아 왕 예수는 이제 세상을 어떻게 그분의 소유로 요구하실까요? 좋은 소식을 가진 사신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참된 왕을 선포하고, 그로써 믿음의 순종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따라야 하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황제와 그의 명령에는 순종을 바칩니다. 주 예수, 주의 주시요 모든 왕의 왕이신 분께는 순종합니다.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한다 해도 황제보다 더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충성과 신실함을 가리키는 말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사명은 수행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왕에 대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장 먼 지역까지 가서 왕을 알린 많은 사람 덕분입니다. 시작은 작았습니다. 제자들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자기들 뒤에 서 계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 뒤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마지막 말씀은 왕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책은 왕께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왕을 고백하라는 초대 또는 일깨움입니다! 이 왕께는 언제나 거듭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용서와 은혜와 자유가 그분 나라의 법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울 자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시편 72:11-15

마태복음 28:16-20; 디모데전서 2:4-5; 로마서 1:15; 5:2; 16:26; 에베소서 2:18; 3:12; 사도행전 17:30-31.

28 왕을 위하여: 믿음과 신실함

이 왕을 섬기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유로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드립니까? 우리는 아주 의식적으로, 또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충성합니까? 어떤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거룩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자신을 내맡겼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돈은? 우리의 관심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종교성? 명성? 허영심? 스포츠? 자기중심성? 음식? 술? 니코틴? 재산? 돈? 권력? 섹스? 성공? 출세?

이런 것들, 또는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좋은지 나쁜지, 거룩한지 죄된 것인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질문입니다. 왕을 섬기거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또는 그분의 이름만 아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왕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왕은 그 직분만으로도 충성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저 동의하거나 무언가를 참이라고 여기기만 하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왕과의 연결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믿음의 순종, 그것이 왕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바람이 우리에게는 명령입니다. 이 왕을 따른다면, 그것은 온전히 따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중간한 것은 여기서도 아주 잘 안 됩니다.

그분 편에 서는 데 무슨 대가를 치르든, 그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옳은 편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신 승리자의 편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원하는 것이며 강요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감사해서 돌아왔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열

명이었습니다. 이 삶에는 가장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 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비해 특별한 이익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왕 없는 삶이 더 단순하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듯,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뜻합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고 그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삶의 첫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이렇게 따르는 삶은 자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잘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패배와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습니다. 의심과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정말 힘겨운 도전입니다.

믿음과 신실함(헬라어: pistis, 라틴어: fides)은 로마 사회에서 서로 간의 변함없는 충성을 뜻했습니다. Fides는 사회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 책임과 충성, 주고받음, 믿을 수 있음과 신실함이 이 말 안에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충성은 황제에게 바쳐졌고, 황제도 다시 자기 백성에게 충성했습니다. 주 예수께 대한 신실함,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은,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올 수 있는 불편과 수고와 포기와 박해는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그런 삶에는 이미 여기서, 곧 하나님의 미래가 시작되기 전에도 기쁨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수고의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왕과 함께하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깊고, 안전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삶입니다. 머지않아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게 될 삶입니다.

다음에 인용하는 노래 가사들은 향수가 아닙니다. 더구나 낭만도 아닙니다. 또한 그것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왕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백 퍼센트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기도, 소원, 또는 목표입니다.

(독일어 원문 찬양)

Ein Leben gegeben für den Herrn der Welt

Ein Leben gegeben für das, was wirklich zählt

Ein Leben für Gott, für ihn allein, das soll mein Leben sein

루카스 디 눈치오(Lukas Di Nunzio)

고린도전서 6:12; 요한일서 5:21; 누가복음 16:13; 누가복음 14:25-33; 17:11-19; 마가복음 10:28-31; 마태복음 25:21-26; 에베소서 1:1; 골로새서 1:7; 4:7; 요한계시록 2:10, 13; 17:14.

(독일어 원문 찬양)

Für den König, für den Herrn

Für ihn geben wir uns hin

Seine Ehre unser Ziel

Nichts bedeutet uns jemals so viel

Für den König, für sein Reich

Alle Menschen sind hier gleich

Lamm und Löwe sind vereint

Und das Licht der Gerechtigkeit scheint

Alle Ehre König Jesus

Unsere Herzen, sie fliegen dir zu

Wir erheben deinen Namen

Der allein wahre König bist du

알베르트 프라이(Albert Frey)

29 왕과 그분의 백성

고대의 좋은 왕에게는 민족들과 부족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하나로 묶고 선한 목자처럼 이끌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비롭게 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좋은 왕은 사람들이 추구할 만하다고 여긴 모든 덕을 구현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우주의 머리로 세워지셨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왕의 머리로서, 그분은 깨어진 우주에 오랫동안 갈망해 온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머리이신 그분 아래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함께 속한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분은 무질서와 모든 파괴의 세력을 없애십니다. 그분의 왕적 "머리 되심" 아래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왕께서는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분, 평강의 왕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메시아는 그분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십니다. 모든 사람이 초대받았고 환영받습니다. 우리 유럽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초기에는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을 동등하게 하나로 모으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평화를 가져오셨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과 땅의 모든 나라에서 온 이방 민족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분의 백성이며, 그 안에서 옛 민족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로서 하나 됨을 이루십니다.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에서 나온 사람들의 연합은 너무나 긴밀해서 한 몸, 한 유기체에 비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곧 몸의 머리이시고,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몸, 그분의 육체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들은 이제 함께 그분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자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집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전에 그들이었던

그대로 남습니다. 자기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편입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하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이 나중의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바실리카(Basilika)라고 불렀습니다. 그로써 그것이 통치자, 곧 basileus, 다시 말해 왕의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실리카라는 말은 여기서 왔습니다. 왕의 백성이 왕과 만나는 장소가 이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이 모임을 위해 특별한 건물, 아니 어떤 건물이든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왕께 대한 경의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많은 민족이 화해하는 것은 우주적 규모의 지극히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특성과 과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원수 됨을 묻을 때, 그것은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폭력과 차별과 다툼이 그칩니다.

그렇게 많은 민족 집단이 함께 모이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왕께서 가져오신 이 평화는 눈동자처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죄를 덮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왕의 이 새로운 공동체의 윤리입니다.

왕의 백성에 속하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이요 영광입니다. 아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백성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왕은 모든 왕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믿기 어려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분의 위엄의 알현실에서 끊임없이 알현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각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분의 부요가 우리의 부요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지배와 권위가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분의 능력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행하게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 있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일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33:22

에베소서 1:9-11; 2:11-22; 4:1-6; 이사야 9:6; 갈라디아서 3:28; 골로새서 3:10-11; 고린도전서 12장; 요한계시록 1:5; 19:16; 디모데전서 6:15; 사도행전 1:4-8.

30 왕의 식탁에서

다윗 왕의 삶에서 나온 이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왕권이 굳게 선 뒤, 그는 죽은 왕 사울, 곧 그의 전임자의 후손이나 친척을 찾습니다. 사울은 그를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 복수하려 했던 것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장애가 있었고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사람을 자기 식탁에 초대합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평생 동안 그는 왕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 아니 원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그분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장애가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산만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성찬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유카리스트(성체성사), 또는 떡을 떼는 일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기념 식사를 제정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왕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기념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왕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왕의 위엄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왕을 보지 못해도 그분은 보이지 않게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예수께 마음을 빼앗긴, 왕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굳게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이 왕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왕의 이 식탁은 믿음의 일입니다. 왕께서 망명 중이신 동안 예수의 제자들은 이 식탁 둘레에 모입니다. 기념 식사를 할 때 그들은 서로를 보고 서로 격려합니다. 이 중간 시기가 지나면 왕께서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5

사무엘하 4:4; 9장; 사무엘하 19:24-30; 21:7; 마태복음 26:26-30; 마가복음 14:22-26; 누가복음 22:14-20; 고린도전서 10:14-22; 11:20-34; 시편 23:5; 히브리서 13:10.

(독일어 원문 찬양)

Königlich strahlt Dein Licht

Du bist ewiglich

Niemand kommt Dir gleich

Sanftmütig führst Du mich

Hin zu Deinem Licht

Ich darf bei Dir sein

Sei Du der Mittelpunkt in meinem Leben

Der Mittelpunkt in meinem Herzen

Ich gehöre Dir

Sei Du der Mittelpunkt in meiner Schwäche

Der Mittelpunkt in meiner Stärke

Ich gehöre Dir

Ich will Dir nah sein

Ich werd Dir folgen

Mein ganzes Leben in Dir verliern

가사와 곡: 유리 프리젠(Juri Friesen), 파울라 프리젠(Paula Friesen) © 2012 Outbreakband

31 왕의 동산

뉴욕시의 항공 사진을 보면 인상적입니다. 센트럴 파크는 고층 빌딩이 바다처럼 펼쳐진 한가운데 있는 크고 푸른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것은 길이가 4킬로미터, 폭이 거의 1킬로미터입니다. 큰 도시마다 공원이 있습니다. 휴식, 고요, 그늘, 열매, 상쾌함, 색색의 아름다움과 향기, 그리고 잔치를 여는 것, 이것이 오늘날까지 동산의 정수입니다. 어딘가 그것은 우리에게 낙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왕들과 왕들에게는 저마다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다운 정원과 공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동산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로 끝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센트럴 파크 같은 것, 낙원 같은 도시 정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것이 분명히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정원사"로서 친히 만드시고 사람들의 손에 맡기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이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수천 년 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끝나 갈 무렵 예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올리브 숲입니다. 거기서 왕은 기도의 씨름을 하러 물러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의 판결이 눈앞에 있음을 아십니다. 이 동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몸의 고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그분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새롭고 더 나은 에덴, 새로운 낙원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걸려 있습니다. 그 대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죄와 죽음이 치워져야 합니다. 그분이 친히 죄를 짊어지시고 그 때문에 죽으실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던 그분에게 그것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그분은 다른 길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다음 이 동산에서 그분은 체포되십니다. 그분의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 길은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끝납니다.

이 무덤도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고, 그다음 한 사람이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 가까운 바위 무덤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동산으로 마리아는 일요일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한 사람이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에덴의 "정원사"이십니다. 왕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새롭고 더 나은 에덴 낙원이 있을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왕의 자매와 형제들이 그곳에 살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게 된 좋은 소식입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새 예루살렘에는 동산 낙원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새 창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완전함의 정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솟아 나와 동산을 적실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과 치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마름, 무엇보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상징입니다.

이 장소는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번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상에 함께하라고 독자에게 그야말로 외칩니다. 누구나 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곧 좋은 소식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복음은 영원까지 이어지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생명을 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어딘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왕의 동산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그런 열매를 찾으시고 거두십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과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불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은 자랄 수 있습니다.

에덴, 시작이요 이상이지만 또한 타락과 단절의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메시아께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신 곳입니다. 동산 무덤, 부활로 죽음이 정복된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왕께서 처음으로 한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제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을 맡기신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도시 정원,

하나님께서 어린양을 통해 그분의 목표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집에 있을 것입니다 – 영원한 고향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하시리라

이사야 51:3; 58:11; 61:11

창세기 2:8 이하; 요한계시록 22:1-5; 22:17; 마태복음 26:36; 요한복음 19:41; 20:1-18; 갈라디아서 5:16-26.

32 정치적인 예수

참된 왕이란 자신의 왕권 통치를 관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의 모습을 만들고, 법을 공포하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왕이시라면, 그리고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분은 정치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공동체와 행정과 입법을 그분의 뜻과 의지대로 시행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원칙을 정치에 담아내려고 애씁니다. 기독교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애씁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노예 제도의 폐지였습니다 – 엄청난 돌파구였습니다.

망명길에 오른 왕들이 있습니다. 또는 망명길에 올라야 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여전히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또한 다릅니다. 그분은 친히 물러나셨고, 인격적으로, 몸으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께 주셨는데도, 그분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시면 언제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서 기록에서 알게 되는 그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에는 말하자면 새로운 세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

그분은 땅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왕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곳에서는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인권과 종교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위해 그들은 서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공동체와 정치의 작은 영역에서도 큰 영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통치권, 그것은 예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왕들과 황제들과 대통령들과 독재자들의 자리를 대신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갈 것이고,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무르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33 왕들의 왕의 귀환

여러분은 어쩌면 서사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아라고른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순찰자입니다. 귀족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왕의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사우론을 이긴 뒤 아르노르와 곤도르의 정당한 대왕이 됩니다. 이 서사시의 셋째 권의 제목은 『왕의 귀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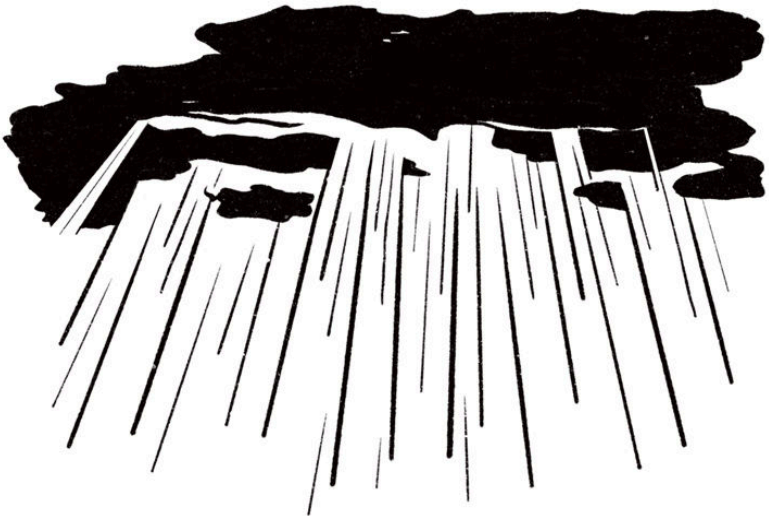
어쩌면 이 대하소설을 지은 톨킨(Tolkien)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사렛에서 온 건축 기술자를 말입니다. 평생 갈릴리의 도시들에서 맏아들로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은, 건축업에 종사하던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을 말입니다. 고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생애 마지막 3년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기적을 행하는 순회 설교자 또는 랍비로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뒤 그분을 본 사람은 그분의 제자들뿐이었고, 그분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하나로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갑자기 바뀔 것입니다. 또다시 모든 것이 세 마디로 말해집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세상으로, 우리 행성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멈춰 서게 할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주, 그리고 인상 깊게 묘사합니다. 그것을 다 묘사하기에는 말이 모자랍니다. 사람들은 말을 잃을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로마까지, 베이징에서 워싱턴까지 그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저세상을 우리에게서 가리고 있는 휘장이 열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날을 위해 무대가 열립니다.

민족들이 갈망하던 분이 오십니다. 두 번째로 오십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십니다. 더 이상 논쟁은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조롱도 없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이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악몽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떤 사람도 더 이상 결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이 한 사람, 유일하게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그때부터 제한 없는 주권적 통치를 하십니다.



왕께서는 왜 다시 오실까요? 그분은 그분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수십억 번 드려진 주기도가 마침내 응답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분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구속을 목표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착취당하고 학대받은 피조물도 이날을 고대합니다. 피조물은 구속될 것이고, 왕께서 치유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왕께서는 복수하시려고 오실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분을 거부한 것에 대해? 아닙니다. 예수는 "아마겟돈의 도살자"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많은 그림은 세상의 모든 왕, 특히 당시의 로마 황제에 대한 반어, 심지어 풍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복수합니다. 그런 복수는 보상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복수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거의 언제나

자신이 입은 손실보다 더 많이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 오심에 대해서는 그것이 복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복수입니다. 예수는 그림처럼 죽임의 상처를 지닌 죽임당한 어린양으로 묘사됩니다. 십자가를, 인류를 위한 그분의 죽음을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분은 피바다를 만들려고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저지릅니다. 민족들이 그들의 거대한 무기고를 사용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앞에서 강제하는 폭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말씀, "내가 그니라"만으로 충분했고, 모든 군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분의 큰 날에 모든 사람이 무기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무기가 떨어지고, 말과 행동과 신념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전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에 보이는 임재가 모든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다시 오실까요?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들리지 않을 수 없게, 보지 않을 수 없게, 갑자기, 뜻밖에, 극적으로, 두렵게, 큰 능력 가운데, 큰 광채 속에 영광스럽게, 하늘로부터, 구름 가운데, 셀 수 없는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오십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사건은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의 바뀜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우리의 모든 약속과 의무가 끝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 왕과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실 일에만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 다시 오실까요? 주일마다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생생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죽은 사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토록 폭발적인 창조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와 사도들은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로 그것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암시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왕의 복음이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때는 환난과 큰 곤경의 때로 묘사됩니다. 사람들은 땅에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과 예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끝이 오기 전에 하늘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이 큰 날에 아직 왕께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을지는 오늘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심지어 의식적으로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간절한 호소가 해당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 내일이 아니라 – 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수백만의 사람이 이미 구약성경에도 예언되었던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참된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들 편에 서십시오. 아무것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10, 13

마태복음 24:27-30, 44; 26:64; 마가복음 13:26; 14:62; 누가복음 17:24; 로마서 8:18; 데살로니가전서 1:10; 2:19; 3:13; 4:13-18; 5:1-11; 데살로니가후서 1:6-10; 2:8-12; 디모데후서 4:1, 8; 디도서 2:13; 베드로전서 1:7, 13; 4:13; 요한계시록 1:7; 19:11-16.

34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가

(독일어 원문 찬양)

Einst, als im Himmel der strahlendste Tag war

Herrschte auf Erden die dunkelste Nacht

Da wurde Jesus als Mensch geboren

Er hat uns Gnade und Wahrheit gebracht

Das Wort wurde Fleisch und das Licht wohnte bei uns

Es scheint in der Nacht

Für uns geboren, für uns gestorben

Er nahm die Sünde der Welt mit ins Grab

Am dritten Tag ist er auferstanden

Einst wird er kommen, welch herrlicher Tag

Welch herrlicher Tag

Dann führten sie ihn hinauf um zu sterben

Ans Holz genagelt, das Kreuz aufgestellt

Der Mann der Schmerzen verachtet, verstoßen, er trug die Sünde

Der Heiland der Welt

Die heilenden Hände sind weit ausgebreitet für unsere Schuld

Am dritten Tag hielt das Grab ihn nicht länger

Weg war der Stein und die Grabkammer leer

Er ist auferstanden, den Tod überwunden

Er fuhr auf zum Himmel, der siegreiche Herr

Er gab neues Leben

Die Schuld ist vergeben, mein Retter ist er

Einst wird er kommen, welch herrlicher Tag

Welch herrlicher Tag, herrlicher Tag

Oh bald wird der Tag seiner Wiederkunft kommen

Bald werden wir ihn in Herrlichkeit sehen

Er wird die Seinen dann ganz zu sich nehmen

Staunend werd ich vor ihm stehen

Für uns geboren, für uns gestorben

Er nahm die Sünde der Welt mit ins Grab

Am dritten Tag ist er auferstanden

Einst wird er kommen, welch herrlicher Tag

Welch herrlicher Tag

Herrlicher Tag

Herrlicher Tag welch herrlicher Tag

알베르트 프라이(Albert Frey)

35 의로운 재판관이신 왕

메시아 왕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이 스칩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자연법칙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마침내 분명해졌습니다.

갑자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그 못지않게 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이 행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갑자기 거기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만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달랐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황제들, 왕들, 종교 창시자들과 평범한 사람들, 셀 수 없는 군인들, 난파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과 살해당한 사람들,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모든 아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아이가 거기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방금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곳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래전에 땅을 존재하도록 부르셨던 그분의 음성이 이제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부릅니다.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실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삶을 아시고, 시험과 시련과 불의한 고난을 아시는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모입니다. 각 사람이 홀로 그분과 마주 설 것입니다. 무더기로 처리하지 않고, 약식 재판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동기, 모든 말이 살펴질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삶을 똑바로 마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마주 볼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느낀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과 그들이 살아온 세월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는 모든 것을 저장해 둔 하드 디스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안심시킵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을 다시 한번 보거나 심지어 겪는 것이?

이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간의 법정도 그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부르는 대로 최후의 심판은 기독교 소망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바로잡힙니다. 개인들이, 집단들이, 민족들이 행한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매수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였던 것은 죄로 남을 것입니다. 선했던 것은 그분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재판관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깊이 죄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판관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이 심판에서 재판관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은 모든 사람의 편이십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듣거나 읽은 사람들에게는 그날 한 가지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만으로는 – 그런 것이 있다면 –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었기를 바란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선한 삶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완전한 삶을 내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을 지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한 일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질문은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것을 이렇게 짚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다르게 말하면, 그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누구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왕은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용서를 베푸십니다. 왕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외면한다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삶의 모든 불의하고 죄되고 이기적인 것이 우리와 왕 사이에 서 있다면 말입니다.

거기에는 예수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분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지, 저는 그것을 안심하고 그분의 하나님다운 은혜와 의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꾸며 낸 이야기라고 생각한 사람들 – 그들에게는 끝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왕은 아무리 은혜로우셔도 아무에게도 그분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이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아무나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의 중심이십니다. 모든 선한 존재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떨어진 존재는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선택하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33:22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7

시편 36:6; 76:8; 89:14; 전도서 12:14; 이사야 5:16; 9:7; 다니엘 7:10, 22; 말라기 3:5; 마태복음 12:36; 25:31-46; 누가복음 20:47; 요한복음 5:22-30; 로마서 2:5; 14:10-12; 데살로니가후서 2:12; 히브리서 9:27; 베드로전서 4:17; 요한계시록 20:11-15.

36 영원한 왕의 통치

예수께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러나 이 통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과 그 흐름, 정부들이 하는 일, 그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일, 이 모든 것이 계속됩니다. 그분은 지금 이미 다스리실까요, 아니면 그분이 오신 뒤에야 다스리실까요?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이미 –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골고다의 승리는 D-Day, 곧 결전의 날입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날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제3제국의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금요일에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이 덧없고, 상처 입고, 죽을 세상의 끝의 시작입니다. 또한 생명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끝의 시작입니다. 아직은 어두운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노예로 삼으며,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들의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과 피조물에게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중간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D-Day와 V-Day 사이입니다. 모든 원수 됨이 극복될 때 Victory Day, 곧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마지막 말씀이 될 때입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께서는 지금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도 권세를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정치 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표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세계 통치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분의 오심과 함께 새로운 세계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통치를 맞을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이 거기 함께합니다. 모든 세계 제국은 지나가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회복의 과정이 있을지, 아니면 옛것에서 새것으로 극히 짧게 바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어두운 날들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소망 가득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
>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보좌에 다시 왕이 앉으셨습니다! 바빌론 포로기와 함께 왕위 계승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보좌도 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열두 사도에게는 메시아께서 하늘로 오르셨을 때, 이제 영원한 군주이신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이 백성의 정당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보좌는 이제 더 이상 땅의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보좌는 모든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대이스라엘 제국의 경계 안에 있는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늘의 나라에 관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먼저 땅의 것이 오고, 그다음 하늘의 것이 옵니다. 뒤의 것이 더 크고 더 영광스럽습니다. 새 땅 위의 하늘의 예루살렘이 모든 믿는 사람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영원한 왕적 통치의 정수입니다. 여기서 다윗 언약이 뜻밖의,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면서 고리가 닫힙니다.

예수의 이 우주적 왕적 통치를 그 상상할 수 없는 차원 그대로 우리는 아직 보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올 것입니다. 그분의 때가 이르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미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알아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땅의 삶에서 사람으로서 낮은 자리에서 사신 예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서 폭력적인 죽음의 모든 쓰라림을 맛보신 예수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피조물에게 미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셨고, 영광의 승리의 관을 쓰셨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과 함께 옛 시대의 연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왕을 따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새로운 모험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14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 14:9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 11:15

시편 22:28; 45:6; 145:12-13; 이사야 9:7; 다니엘 2:44; 4:3; 7:27; 마태복음 6:10; 25:34; 누가복음 1:33; 사도행전 2:30; 로마서 14:9; 고린도전서 15:24;

에베소서 5:5; 데살로니가전서 2:12; 디모데후서 4:1, 18; 요한계시록 11:15; 12:10; 22:5.

37 왕의 은혜와 선물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법 제도는 권리를 내세웁니다. 은혜란 자기 권리를 고집하지 않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에,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에 은혜와 선물이 무엇을 뜻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은혜와 선물을 가리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중심 개념은 헬라어 cháris입니다. 이 말은 의미의 폭이 넓습니다. 호의, 은총, 선의, 자비로운 돌봄, 그리고 이 호의와 돌봄을 나타내 보이는 것, 예를 들어 은혜로운 행위, 또는 두 말을 이어 붙인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은인들의 선물은 cháris의 행위입니다.

고대에 은혜 또는 선물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스며든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물이나 호의를 주고받는 일은 결코 속셈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사업을 넓히려고 돈이 필요하면, 그것은 이자만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원자가 베푸는 호의는 서로에게, 그러나 말로 하지 않는 의무를 만들어 냈습니다. 받을 권리가 없는 은혜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 때문에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받은 사람은 같은 가치의 선물을 결코 되돌려 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회가 생기면 그를 위해 한 표를 던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선물의 상호적인 "체계"는 지극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은혜는 누군가 주권적으로 선물할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그로써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주는 사람은 그것을 알았고, 대가를 요구할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언제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 또는 선물로 일종의 의존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조금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선물을, 그것도 특별한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다음 기회에 무언가를 되돌려 선물합니다. 우리는 그럴 어떤 의무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께로 갑시다. 바울은 그분에 대해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합니다.

>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우주의 왕 예수께서 논란이 될 만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차별 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엄청난 너그러움으로 선물하십니다. 그것은 당시의 문화와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와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요해지도록 자신이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난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대의 은혜의 의미는 왕이신 예수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물을 통해 관계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표현하십니다. 강요되지 않은 사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되돌려 드리는 사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 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대다수가 그분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원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받은 것, 그리고 이 왕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만 말합니다. 용서, 무죄 선고, 구속, 영원한 생명, 해방, 성화, 그리고 자유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바치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신약성경에서 은혜의 선물(은사)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 안의 능력들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가르침, 병 고침, 예언과 방언, 능력 행함, 영들 분별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도록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2:11

요한복음 1:14, 16-17; 로마서 3:24; 5:15-16; 6:23; 12:1-3; 11:29; 고린도전서 12:4-11; 고린도후서 6:1; 8:9; 에베소서 2:5; 디모데후서 1:9; 디도서 2:11; 3:7; 히브리서 2:9.

38 왕의 신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런 왕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끌 수 있을까요? 누가 그분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께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얻으시려고 길을 나서실 정도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분이 신부를 원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혼자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귐을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분은 친히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나눌 수 없는 하나 됨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내의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결론을 조심스럽게 끌어내어도 됩니다. 옛 언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신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전체입니다.

새 언약에서 신부는 한 민족이 아닙니다. 신부는 이제 모든 백성과 민족에서 나온 회중입니다. 사랑받는 이는 신랑처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부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모든 믿는 사람도 가리킵니다. 곧 왕이요 신랑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전체, 모인 무리 전체입니다. 신부와 신랑의 비유보다 사랑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부를 얻으시려고, 그녀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진심이신지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명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그녀를 반드시 얻기 원하셨습니다.

왕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이라고 여기실까요? 고대의 왕들은 신분에 맞게 결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외들입니다. 왕이 평범한 여인, 심지어 여종을 아내로 맞을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신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 많은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모범적인 신랑이요 남편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부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종처럼 행하셔서 그녀를 씻기십니다. 그녀가 깨끗하고 흠 없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언어는 이 사랑의 관계가 진짜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 친밀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 그분의 몸(육체)입니다. 함께 그들은 한 사람을 이룹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께 없던 것이며, 이제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비유의 언어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참되며, 얼마나 의지가 굳센지를 정확히 짚어 줍니다. 이런 신랑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일은 어려울 수 없습니다.

신부는 언젠가 잔치가 시작되면 혼인 예복을 입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예복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행한 선한 일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복은 지금 만들어지는 중이며,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시편 45편의 왕의 혼인 노래에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45:1, 11

시편 45편; 이사야 61:10; 62:5; 마태복음 22:2-12; 마가복음 2:19-20; 요한복음 3:29; 고린도후서 11:2; 에베소서 3:18-19; 5:25-30; 요한계시록 19:7-9; 21:2, 9, 17.

39 왕의 혼인 잔치

저는 결혼식을 좋아합니다. 특히 따뜻한 봄과 여름의 결혼식을 좋아합니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기쁨이 저녁 공기를 가득 채울 때를 좋아합니다. 특히 그저 잔치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웃기만 하면 되는 손님일 때가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날을 오래전부터 고대해 왔습니다. 막상 그날이 오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그날을 붙잡아 두고, 계속 잔치를 벌이고, 추억만 즐기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들은 왕, 그분도 혼인 잔치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왕께서 크고 영광스러우신 만큼 혼인 잔치도 크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주적인 잔치입니다. 왕께서 그분의 신부를 맞으실 때 하늘은 숨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거나 텔레비전에서 본 모든 (왕실) 결혼식을 잊으십시오. 미나스 티리스의 산성에서 열린 아라고른과 아르웬의 결혼식도 잊으십시오. 그 결혼식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영화 장면에서 연출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그 장면이 조금은 영감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깊은 감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불이 타오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주위의 세상을 잊습니다. 이제 마침내 잔치가 왔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이 혼인의 전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온 세상의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든 원수 됨이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이 혼인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혼인 잔치의 때와 장소는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것도 충분히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즐거운 잔치, 수십억의 사람이 거리낌 없이 즐기는 파티입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지 않습니다. 초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잔치에서 우리는 그분이 기쁨과 잔치와 환호를 만드신 분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된 땅이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새로 고쳐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더욱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잔치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꾸미십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이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미래의 잔치를 한 번 이상 묘사합니다. 저는 이 잔치의 끝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잔치가 하루 만에, 또는 중동에서처럼 일주일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이 혼인 잔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복이 없으면 금세 눈에 띄어 쫓겨납니다. 예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비유적인 의미로 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 곧 잔치의 손님들은 –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옷, 이것은 비유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뜻하는데, 군데군데 꽤 더러워서 왕의 혼인 잔치의 빛과 영광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우리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은 눈부신 흰빛으로 빛납니다. 이 잔치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어둡고 미심쩍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랑의 상처 자국,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만이 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이 증거들은 영원한 기념으로 남습니다.

사실, 왕께서는 오늘 지금도 실제로 미래의 혼인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초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특혜나 우대도 없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 병든 사람, 죄인, 절망한 사람, 잊힌 사람, 자기 삶을 돌아보며 선한 것을 전혀, 또는 조금밖에 찾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를 지으신 이가 영원히 너와 결합하실 것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5 (독일어 성경 번역본에서 번역)

이사야 61:10; 62:5; 마태복음 22:2-12; 고린도후서 11:2; 에베소서 5:25-30; 요한계시록 19:7-9; 21:2, 9, 17.

(원문 그대로 싣는 노래)

You’re my friend

And You are my brother

Even though You are a King

I love You more than any other

So much more than anything

Du bist mein Freund

Und Du bist mein Bruder

Obwohl Du ein König bist

Ich liebe Dich mehr als jeden anderen

So viel mehr als alles andere

Du, o Herr, bist mein Freund und Bruder, du mein König und mein Gott!

Dich begehre ich mehr als alles, so viel mehr als höchstes Gut.

40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 책은 왕들의 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들에 관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떼어 놓기 어렵습니다. 이 책의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들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참된 왕께서 오셔서 폐허와 깨진 조각과 먼지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목표에 이르십니다.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르십니다. 자신에게 용서와 구원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왕들로서 왕들의 왕, 곧 그분의 아들과 하나로 모으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그분은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 … 그리고 진리의 믿을 만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이제 땅의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
>
>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함께 다스리는 자들로, 그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사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신 이에게,
>
>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왕의 인도를 받아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꿈꾸었던 것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더 복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 길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과 충성은 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영원한 복은 지금도 앞으로도 받을 자격 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끝맺기 전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지금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들은 세계의 흐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 보아야 할까요?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독특한 말씀이 해당됩니다. 죄가 원수입니다. 죄는 모든 삶을 붙잡아 소유하고,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고, 짐을 지우려는 파괴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이 힘은 우리가 속한 왕의 죽음과 부활로 꺾였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또 다스려야 합니다. 죄에게서 공간과 기회를 빼앗고, 죄가 활개 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살아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우리 주변으로 영향을, 효과를 미칩니다. 왕으로서 우리는 정치 권력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곳에서는 그것을 막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께서 그분의 삶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잊힌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과 소망 없는 사람들 편에 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세계의 흐름에 일종의 공모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로 영향을 미칩니다. 비밀스러운 모의입니다! 폭력 없는 음모입니다. 전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이 잘되도록, 그리고 불의와 굶주림과 가뭄을 몰아내도록 하는 음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에 맞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왕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 곧 중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일종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곳에서 그것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일을 연습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게 될 미래를 위한 훈련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복을 빌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가져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왕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 위에 둡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게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위에 임하게 합니다. 동물들에게도, 집들에게도, 가정들에게도, 정부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은혜와 복이 필요한 모든 것에 그렇게 합니다. 복을 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고, 경험되고, 눈에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함과 치유와 형통과 구원과 해방 가운데 그렇게 됩니다.

다만 기도와 중보와 복을 비는 일이, 가능하고 필요한 곳에서 현장에 나가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불의와 차별에 맞서 일어서지 않을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5:11

로마서 5:17; 디모데전서 2:1-7; 디모데후서 2:12; 베드로전서 2:5-9; 요한계시록 1:5-7; 5:9-10; 22:5.

끝으로 다시 한번 왕이신 예수에 관하여: 그분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2.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17, 23; 12:28.

예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직 그것을 최종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으셨지만 말입니다; 마태복음 12:28; 누가복음 19:38; 요한복음 1:49; 그러나 또한 6:15.

예수는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에 섬김을 위한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18; 에베소서 1:19-22.

예수는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5:15-17; 아모스 9:11-12.

예수는 승리하신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5:25.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마태복음 28:18),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다스리시고(요한복음 18:36-37), 나중에 눈에 보이게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편 66:4; 72:16-19; 이사야 2:2; 다니엘 7:13-14, 18, 22, 27; 히브리서 10:13; 요한계시록 15:4.

Oh, if there's only one song I can sing, When in His beauty I see the great King, This shall my song in eternity be, "Oh, what a wonder

that Jesus loves me!”

오,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단 하나뿐이라면, 위대한 왕을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 뵈올 때, 그것이 영원토록 나의 노래가 되리라. “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저자의 다른 책들

Und die Toten leben doch (『그래도 죽은 자들은 살아 있다』), 빌레펠트, 1992년

Seitenwechsel - Von Adam zu Christus (『편을 바꾸다 -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빌레펠트, 2011년

Entrückung, Himmel, Ewigkeit - Ein neuer Blick auf alte Themen (『휴거, 하늘, 영원 - 오래된 주제를 새롭게 보기』), 뉘른베르크, 2015년

Gottes Lamm, Golgota und die Ewigkeit (『하나님의 어린양, 골고다, 그리고 영원』), 부퍼탈, 2015년

Fantastische Himmelwelt, Lehre und Leben der Himmelwelt im Epheserbrief (『놀라운 하늘 세계 -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늘 세계의 가르침과 삶』), 뉘른베르크, 2016년

Gott spricht, Eine erklärende Übertragung der allgemeinen Briefe und der Offenbarung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 공동 서신과 요한계시록의 해설 번역』), 줄츠베르크, 2017년

Epheser,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줄츠베르크, 2018년

God’s good Gospel, Gottes gutes Evangelium (『하나님의 좋은 복음』), 줄츠베르크, 2019년

Markus,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마가복음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줄츠베르크, 2019년

Galater,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줄츠베르크, 2020년

Die Briefe des Johannes,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요한 서신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줄츠베르크, 2020년

Frauen, vergebt uns! – Die Rolle von Frau und Mann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 여성과 남성의 역할』), 줄츠베르크, 2020년

Frauen, vergebt uns! – Mann und Frau in Ehe und Gemeinde, Kurzversion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 결혼과 교회에서의 남성과 여성』, 축약판), 아우크스부르크, 2022년

그 밖의 글: www.hans-joerg-ronsdorf.de

이 책들은 저자에게서 또는 서점에서 구할 수 있으며, 많은 책이 아마존(Amazon)에서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hj-ronsdorf@t-online.de 또는 08376 929643